

# 2017-1

영글(영화와 글쓰기) 클럽  
우수사례 모음집





# C/O/N/T/E/N/T/S

개통원츄 팀 활동보고서

**1**

**2**

무리데쓰 팀 활동보고서

송지연, 최지혜 학생의 활동보고서

**3**

**4**

현름 팀의 활동보고서

# 2017학년도 1학기 영글 클럽

## I. 개통원추 팀 활동보고서

### 포레스트 검프

#### 1. 감상 영화 소개 및 줄거리

영화감상 일시	2017년 5월 22일 월요일
영화감상 장소	현암기념관 도서관
영화 제목	포레스트 검프
감독	로버트 저메키스
주연	톰 행크스
영화 장르	드라마, 코미디
줄거리	<p>'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야. 네가 무엇을 고를지 아무도 모른다...'</p> <p>불편한 다리, 남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지능을 가진 외톨이 소년 '포레스트 검프' 헌신적이고 강인한 어머니의 보살핌과 콩깍지 첫사랑 소녀 '제니'와의 만남으로 사회의 편견과 괴롭힘 속에서도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성장한다.</p> <p>여느 날과 같이 또래들의 괴롭힘을 피해 도망치던 포레스트는 누구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자신의 재능을 깨닫고 늘 달리는 삶을 살아간다. 포레스트의 재능을 발견한 대학에서 그를 미식축구 선수로 발탁하고, 졸업 후에도 뛰어난 신체능력으로 군에 들어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성과를 거둬 무공훈장을 수여 받는 등 탄탄한 인생 가도에 오르게 된 포레스트.</p> <p>하지만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았던 시간도 잠시, 어머니가 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고 첫사랑 제니 역시 그의 곁을 떠나가며 다시 한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과연, 포레스트는 진정한 삶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까?</p> <p>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제시하는 감동 바이블! 울 가을,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달리기가 시작된다! "Run! Forrest Run!"</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네이버 영화</p>

## 2. 영화를 보고 느낀 점

### 김소연(약학과 20155105)

포레스트 검프 는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포레스트는 IQ가 75이고 어렸을 때는 척추가 휘어서 다리에 보조장치를 달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포레스트에게 ‘너는 이상하지 않다. 바보는 단순히 지능이 낮은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포레스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제일 감동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초등학교에서 그를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머니의 도움으로 포레스트는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은 포레스트를 괴롭혔지만 제니는 포레스트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포레스트는 제니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제니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었고 아버지에게서 도망칠 수 있게 새가 되게 해 달라고 신께 빌었습니다. 포레스트의 어머니의 신고로 인해 제니는 그녀의 할머니와 살게 됩니다. 다른 아이들이 괴롭힐 때 제니는 포레스트에게 “달려 포레스트 달려! Run Forest Run!” 라고 외쳤고 이 때 포레스트는 자신이 달리기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달리는 모습을 알라바마 대학의 미식축구 감독이 보게 되었고 그는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까지 하게 됩니다. 대학 졸업 후 포레스트는 입대를 하게 되었고 가장 친한 친구인 버바와 댄 테일러 중위를 만나게 됩니다. 포레스트는 그의 시키면 다 하는 성격 덕분에 군대에서 적응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버바의 꿈은 제대 후 새우잡이 배를 사서 새우잡이 사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포레스트에게 자신이 선장이 되면 포레스트에게 1등 항해사를 시켜 줄 거라고 동업을 제안하고 포레스트는 이를 수락합니다.

포레스트는 베트남 파병명령을 받게 되고 베트남에 가기 전에 제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제니는 스트립 싱어가 되어있었고 그녀를 괴롭히는 남자들을 보고 포레스트는 화가 나서 그들을 저지합니다. 제니는 포레스트가 너무 과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해서 포레스트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포레스트가 베트남에 간다는 소식을 들은 제니는 포레스트에게 위험한 상황이 오면 무조건 달리라고 조언합니다. 그 후 제니는 포레스트가 보는 앞에서 차를 잡고 떠납니다. 베트남에 간 후 그는 거의 매일 제니에게 편지를 쓰지만, 제니는 고향을 떠난 후여서 주소지 불명으로 편지가 반송되어 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레스트가 있던 부대는 기습을 당합니다. 그는 제니의 말대로 달리다가 친구인 버바가 아직 공격받는 중인 정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버바를 구하기 위해 다시 정글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글로 갈 때 마다 그는 부상당한 다른 팀원들과 댄 중위를 찾아서 안전한 곳으로 옮겼지만 버바를 찾지 못했습니다.

댄 중위를 구하고 나서 다시 정글로 들어갔을 때 그는 그제서야 버바를 찾을 수 있었지만 버바는 심한 부상을 입어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포레스트는 전투 중에 부상당한 전우들을 구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훈장을 받게 됩니다. 포레스트는 전우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엉덩이에 총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병원에서 포레스트는 탁구를 배우게 되고 자신이 탁구에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상이 나은 후 그는 군 병원에서 탁구공연을 하면서 지내고 나중에 중국에서도 탁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즈음에 그는 댄 중위를 만나게 되는데 댄 중위는 전투에 심한 부상을 입어 다리를 절단한 상태였습니다. 다리를 절단했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한 그는 술을 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레스트에게 만약 포레스트가 새우잡이 배 선장이 되면 자신이 일등항해사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포레스트는 전역을 한 후 버바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탁구채 광고 모델 수입을 이용해 새우잡이 사업을 준비합니다. 댄 중위도 그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등항해사로 합류합니다. 처음에는 새우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태풍이 해안선을 덮쳐서 해안선에 정박해있던 새우잡이 배들은 모두 난파했는데 그날 출항을 했던 포레스트의 배는 유일하게 태풍에서 살아남은 배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포레스트와 댄 중위는 엄청난 양의 새우를 잡을 수 있게 되었고, ‘버바 검프 슈림프’라는 회사를 세워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댄 중위가 애플 사에 투자를 하게 되어 더 큰 수익을 얻게 되고 포레스트는 버바의 가족들에게 지분을 나누어 주어서 버바의 가족들도 부자가 됩니다. 포레스트는 새우잡이를 하던 중에 어머니가 편찮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급하게 집에 도착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게 되고 포레스트는 그 후 그의 재산을 동네 병원, 교회 등에 기부하거나 잔디를 공짜로 깎아주면서 하루를 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후 오랜 방황을 끝내고 돌아온 제니를 만나 같이 살게 되었고 포레스트는 그녀에게 청혼을 하지만 제니는 거절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제니가 떠나서 큰 공허감을 느낀 포레스트는 무작정 달리기 시작합니다. 미국 땅을 횡단하는 그의 모습이 대중매체에 알려지게 되고 여러 추종자도 생기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 그의 모습을 본 제니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고 포레스트는 편지를 보고 제니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니가 키우고 있는 아이의 이름이 포레스트이고 아빠이름을 따라 지었다는 제니의 말을 듣고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포레스트는 아들이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졌을까 두려워했는데 제니가 포레스트에게 아들은 똑똑하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제니는 포레스트에게 청혼을 하고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고 결국 제니는 병으로 죽게 됩니다. 포레스트는 제니의 무덤을 그와 그녀가 놀았던 나무가 있던 곳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니가 싫어했던 제니의 아버지의 집을 불도저로 밀어 없애버립니다. 그가 제니를 그리워하며 제니의 무덤 앞에서 울던 장면이 정말 슬펐습니다. 포레스트가 학교에 아들을 보내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는 인상 깊은 대사들이 많았는데 그중 포레스트의 어머니가 포레스트에게 해주는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포레스트 어머니는 포레스트에게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야. 어떤 걸 가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라고 말하는데 그 대사를 통해 저도 제 인생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 조해람(약학과 20155136)

과거 ‘파이만씨, 농담도 잘하시네’라는 물리학자 파이만의 책을 읽은 적이 있다. 태생이 개구쟁이였던 그는 문을 훔친 적이 있다. 클럽사람들이 도둑을 찾기 위해 모여서 명예를 걸고 사실만을 말하자고 맹세한 뒤 도둑인지에 대해 한 사람마다 물었다. 파이만은 웃으며 자신이 도둑이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물어본 뒤 어떻게 명예를 걸었는데 도둑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한탄한다. 나중에 파이만이 문을 되돌려 놓은 뒤 사람들은 파이만이 도둑인 걸 알아챘지만 그때 모임에서 그가 자백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 때는 그저 웃긴 에피소드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에피소드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포레스트가 미국 전역을 뛰었을 때 사람들은 그가 그저 달리기를 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그에게 평화를 위해서인지 평등을 위해서인지 묻고 또 물었다. 진짜 사실을 알기 위해서 말이다. 그들은 사실을 믿지 못했지만 그로 인해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영감을 받고 같이 뛰기도 하고 유명한 브랜드가 탄생하기도 하였다. 파인만 에피소드를 들었을 때 믿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 믿을 수 있는 걸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유 없이 뛰는 걸 믿을 수 없었던 것 같다. ‘아무런 이유 없이 고행을 자처할 리가 없다. 도둑이 스스로 밝힐 리 없다.’ 그렇게 굳게 믿었기에 그에 벗어나는 말은 못 듣게 되고 거짓말이라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듯 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영화의 내용을 다시 보게 되었다.

군대 상사 댄이 포레스트에게 살려주지 말았어야 한다며 포레스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도 그는 죽었어야 할 운명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듣지 못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다. 제니의 무덤 앞에서 포레스트가 댄과 어머니의 말이 모두 맞는 것이라고 했을 때 항상 주변 말을 잘 듣던 포레스트가 댄을 살린 이유도 댄의 말을 못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포레스트는 살려달라는 주변 사람들을 살려줬지만 댄은 한 번도 살려 달라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그곳에서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하지만 포레스트에게 삶은 초콜릿 박스라는 믿음이 강하였기에 죽을 운명이라는 말을 믿지 못했던 거 같았다. 제니가 죽으면서 운명의 존재를 믿을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댄 역시 포레스트와 함께 지내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한 믿음 대신에 포레스트가 말한 초콜릿 박스에 대한 말에 대해 믿기 시작한 것 같다. 믿을 수 있게 되면서 원래 갖고 있던 생각에 대한 믿음을 줄일 수 있었고 삶에 대해 의지가 생긴 것으로 생각되었다.

영글 클럽(2017-1)

---

포레스트의 뿔박질 추종자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의 새로운 계기를 갖게 되었다. 포레스트와 댄은 새로운 계기로 믿지 못했던 것들을 믿게 되면서 삶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다. 영화를 보며 다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건 내가 믿을 수 없다 생각했기에 그런 것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얻게 된 소득에서 사실을 굳이 알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생각이 들게 한 좋은 영화였다.

---

## 보스 베이비

### 1. 감상 영화 소개 및 줄거리

영화감상 일시	2017년 5월 25일 목요일
영화감상 장소	메가박스 강남역점
영화 제목	보스 베이비
감독	톰 맥그라스
주연	알렉 볼드윈
영화 장르	애니메이션, 코미디, 가족
줄거리	<p>시크한 눈빛, 짝 빠진 수트핏 귀여운 얼굴 뒤 숨겨진 반전포스 세상에 없던 베이비가 온다!</p> <p>어느 날 굴러들어온 아기 동생에게 엄빠의 사랑을 모두 빼앗겨 버린 ‘팀’ 평소엔 양증맞은 베이비, 알고 보니 ‘베이비 주식회사’의 카리스마 보스 ‘보스 베이비’는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근무 중!</p> <p>팀은 엄빠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보스 베이비는 라이벌 ‘퍼피 주식회사’를 무찌르기 위해 원치 않는 공조를 시작한다</p> <p>7살 빅 브라더 vs 7개월 베이비 브라더 그들의 살벌한 팀플이 시작된다!</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네이버 영화</p>

## 2. 영화를 보고 느낀 점

### 김소연(약학과 20155105)

팀 레슬리 템플렛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7살 아이입니다. 하지만 동생(보스베 이비)가 생기면서 그는 더 이상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해서 슬퍼합니다. 팀은 보스베 이비가 사실은 말을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부모님께 알리려 하다가 외출금지를 받게 됩니다. 보스베 이비는 팀에게 왜 팀의 가족에게 왔는지 설명을 합니다. 보스베 이비는 사실 베이비 코퍼레이션의 간부입니다. 베이비 코퍼레이션은 아기의 아기에 의한 아기를 위한 회사로, 아기들을 가족에게 보내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들 중에서 간부들을 뽑아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동안과 지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우유를 마십니다. 만약 이 우유를 일정시간 내에 마시지 못한다면 노화가 진행되고 기억을 잃고 온전히 아기가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그리스로마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불로불사를 유지하기 위해 마신다는 넥타르가 생각났습니다. 베이비 코퍼레이션은 경쟁사인 퍼피 주식회사에서 새로 출시하는 신제품의 강아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아기들을 부모가 퍼피 주식회사의 직원인 가족에게 파견했습니다. 베이비 코퍼레이션에서는 사람들이 아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를 경쟁사 퍼피 주식회사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퍼피 주식회사에서 애완동물을 사람들에게 공급했고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애완동물에게 다 줘버려서 아이들을 더 이상 그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이 영화에서는 사랑이 물리적인 양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스베 이비가 팀의 부모님이 줄 수 있는 사랑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그 사랑을 아기인 보스베 이비에게 다 줘버려서 팀에게 줄 사랑이 더 이상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팀은 큰 슬픔을 느낍니다. 저는 영화에서 나온 이 논리가 이 애니메이션을 보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부모님께 큰 서운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로 애완동물의 존재를 제시하는데 이런 점도 아쉬웠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문제와 저출산을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자체는 무난히 재미 있었지만 이런 요소들로 인해 영화를 보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팀은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다시 자신에게만 오기를 원했고, 보스베 이비는 퍼피주식회사의 신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어 베이비 코퍼레이션에서 승진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둘은 이렇게 서로의 이해 관계가 맞아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동맹을 맺은 그들은 부모님 직장을 방문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외출금지를 벗어나려고 사이가 좋은 형제인 척 연기합니다.

결국 형제는 외출금지에서 벗어나고 퍼피 주식회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신상 애완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빼내려 했지만 그들은 퍼피 주식회사의 사장인 프랜시스 프랜시스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의 정체와 음모에 대해 알게 됩니다. 프랜시스는 사실 베이비 코퍼레이션에서 쫓겨난 간부였고 이에 앙심을 품은 그가 경쟁사인 퍼피 주식회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이비 코퍼레이션의 아기들이 마시는 특수한 우유를 이용해서 영원히 귀여움을 유지하는 강아지를 만들어 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템플릿 형제에게서 우유를 뺏아서 상품 개발을 완료했고 라스베이거스에서 출시발표를 하기 위해 형제의 부모님을 데리고 베가스로 떠납니다. 형제들은 부모님과 사장이 출국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막지 못하고 다른 일행에 몰래 섞여서 베가스로 입국합니다. 프랜시스 사장은 형제들의 부모를 가두고 로켓에 신상 강아지들을 담아서 전국에 퍼트리려고 합니다. 형제들은 프랜시스 사장의 계획을 막고 부모님을 무사히 구출합니다. 보스베이비는 승진을 하고 다시 베이비 코퍼레이션으로 돌아갔고 회사에서 직원들이 나와 보스베이비가 살았던 흔적과 부모님의 기억을 지웁니다. 팀과 보스베이비는 서로를 그리워하고 팀은 보스베이비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보스베이비는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아 간부직을 사퇴하고 팀의 가족에게로 갈 것을 결정합니다. 영화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위에 적었던 것처럼 몇 가지 아쉬운 요소들이 있었지만 캐릭터들이 귀엽고 재미있었던 영화였습니다.

### 조해람(약학과 20155136)

예고를 보았을 때는 상당히 귀여운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했는데 별로였다. 캐릭터들이 귀엽긴 했지만 내용이 생각보다 재미있지 않아서 실망했다. 또한 주인공인 '팀'은 워낙 공상이 많은 캐릭터라 공상과 현실 사이의 구분이 어려웠다. 공상이 많은 팀은 외동아이였지만 7살 때 둘째 남동생이 생긴다. 남동생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들어왔고 항상 양복을 입었다. 부모님의 사랑을 동생에게 빼앗긴 팀은 힘들어하다가 동생이 그저 아기가 아닌 아기 주식회사 직원임을 알게 된다. 처음에는 부모님께 말하려다 좌절되고 작전이 성공하면 다시 회사로 돌아간다는 보스 베이비의 말에 작전을 돕는다. 우여곡절 끝에 작전을 성공시키고 보스베이비는 회사로 돌아간다. 보스베이비가 그리운 팀은 보스 베이비의 회사로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본 보스 베이비가 집으로 돌아오며 이야기가 끝난다.

아기 주식회사라는 설정은 제작진이 만든 '아기배달부 스톡'과 비슷하였다. 둘 다 아기가 공장을 통해 만들어져서 배달해준다는 설정이 같았고, 다른 점이라면 회사를 이루는 주체가 '아기배달부 스톡'은 황새였다면 '보스 베이비'는 아기들이었다. 또 다른 점은 '아기배달부 스톡'에서 어른들도 황새가 아기를 배달해준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보스베이비'는 팀과 보스 베이비 팀 아가들 말고는 회사 외 사람들은 아무도 아기들이 어디서 오는지 몰랐다. 영화 도입부에 아기를 임신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공장에서 아기를 배달해준다는 설정을 도입하니까 혼란스러웠다. 어디서부터 팀의 상상인 것인가라고 헷갈려서 설정의 어느 부분을 현실이라 믿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특히 보스베이비가 회사로 돌아가는 설정에서 너무 혼란이 왔다. 분명 엄마가 임신을 했었던 상황에서 기억을 지우면 그 상황까지 지워지는 것인지 다시 돌아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한 것인지 영화에 몰입이 힘들었다.

아이와 샐러리맨의 중간단계인 아기 주식회사 샐러리맨들의 설정은 독특해서 신선했다. 우유를 받기 전에 아이처럼 울고 낮잠시간은 필수이지만 파이를 읽고 실적이 부실한 부하직원을 닦달한다. 그런 점이 새로웠지만 그 경계가 애매했다. 다 자란 아기인 것인지, 아니면 아기이지만 똑똑하기에 직원이 된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이해하기에 매끄럽지 않았다. 사랑을 받지 못한 아기 직원들이 안타까운 것인지 가족적이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하는 게 더 적합한 것인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는 회사에서 있는 게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극이 진행되면서 가족끼리의 사랑을 못 받는 안타까운 존재라고 표현해서 헷갈렸다. 그래서 인물들의 심정을 알 수 없어서 몰입이 힘들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몰입이 힘들고 재미없었는데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은 교훈이 담겨있어서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영화 같았다.

## 개통원추 팀 최종보고서

### 1. 프로그램 개요

- 1) 프로그램 명 : 영어 클럽
- 2) 참여자 : 김소연(약학과 15) 조해람(약학과 15)
- 3)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 총 7회

나. 활동 기간: 2017년 4월 5일 ~ 2017년 6월 22일 (총 18시간)

### 2. 활동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2017.4.5	18:20-20:50	메가박스 강남	돌연변이 X맨 울버린, 로건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은 '로건'을 감상하였다. 영화를 본 뒤 로건의 생애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다.
2017.5.22	10:00-11:50	현암 기념관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감상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다.
2017.5.25	20:20-01:00	메가박스 강남	'캐리비안의 해적 : 죽은 자는 말이 없다'와 '보스 베이비'를 감상하였다. 두 영화의 부족한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 비교해보며 이야기 하였다.
2017.5.30	18:20-20:30	롯데 타워 롯데시네마	'캐리비안의 해적 : 죽은 자는 말이 없다'를 4D 버전 감상하였다. 전 활동에서 본 일반 2D와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2017.6.1	9:40-11:40	현암 기념관	캐리비안 해적 시리즈의 3번째 영화인 '캐리비안의 해적 - 세상의 끝에서'를 감상하였다. 시리즈의 내용이 흘러가면서 스토리상 연계성 및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다.
2017.6.6	10:00-12:00	메가박스 강남대로점	'미이라'를 감상하였다. 지난 미이라 시즌과 비교해보았고 영화에서 스토리 개연성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다.
2017.6.8	21:30-00:00	코엑스점 메가박스	'원더우먼'을 감상하였다. 영화 내 사용 된 특수 촬영부분과 물 입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 2. 프로그램 소감

영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학기 중 영화를 볼 기회가 좀처럼 없었는데 영어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내서 영화를 찾아보았고 영화에 대한 시각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제 취향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었고 영화를 고르는 기준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또 영화를 본 뒤 감상문을 쓰면서 제 생각을 가다듬으며 좀 더 깊게 영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조원 친구와 볼 영화를 고르면서 취향을 공유하며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영화를 본 뒤 서로 느꼈던 점들을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영화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지 못하고 지나칠 뻔했던 장면들의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어 활동을 통해서 시각을 넓히고 동기와 친목도 도모할 수 있어 의미 깊었습니다. 다음 활동이 있다면 다시 참여하여 이번 활동처럼 즐겁게 활동하고 싶습니다.



### 3. 활동 사진



## II. 무리데쓰 팀 활동보고서

### 죽은 시인의 사회

#### 1. 감상 영화 소개 및 줄거리

영화감상 일시	2017년 4월 14일 금요일
영화감상 장소	기숙사
영화 제목	죽은 시인의 사회
감독	Peter Weir
주연	Robin Williams, Robert Sean Leonard, Ethan Hawke
영화 장르	코미디, 드라마
줄거리	<p><b>카르페 디엠!</b> <b>Carpe Diem!</b> 1859년에 창립된 미국의 명문 웰튼 아카데미의 새학기 개강식. 이 학교 출신인 ‘존 키팅’ 선생(로빈 윌리엄스)은 새 영어 교사로 부임한다. 첫 시간부터 ‘키팅’ 선생은 “카르페 디엠”을 외치며 파격적인 수업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데...</p> <p>오 캡틴! 마이 캡틴! O Captain! My Captain!</p> <p>‘닐’ (로버트 손 레오나드)은 ‘키팅’ 선생을 ‘캡틴’이라 부르며 따르게 되고,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서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닐’과 그의 친구들은 엄격한 학교 규율을 어기고 서클에 참여하면서 ‘키팅’ 선생을 통해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느끼게 되는데...</p> <p>[출처] 네이버 영화</p>

## 2. 영화를 보고 느낀 점

### 송인선(간호학과 20162134), 박예주(간호학과 201621216)

나 또한 못하면 죽을 거 같을 정도로 가고 싶었던 길을 포기했기에, 날이 가깝게 느껴지는 영화였다. 돌이켜보면 중,고등학교에서 열정에 가득 찬 선생님을 가끔 만나게 된다. 열정은 전염성이 있는지라 학생들의 마음까지 움직이고 열정이 학생들에게서 자라게 되면 학생들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열정들이 나타나게 된다. 사실 나는 키딩같은 선생님을 만나진 못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공부’에 특기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호의와 열정을 보이지만, 나처럼 집에서 밀어주지 않는, 예체능의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결국 원치 않던 길로 달려가던 나는 스스로가 비참해서 무너질뻔한 적이 있다. 연극인의, 그리고 청소년의 어린 마음을 가졌던 날은 안타깝게도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날의 죽음이란 사건을 학교와 학부모는 선생 한 명의 탓으로 돌려버렸지만, 이 영화가 명작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문제가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머니 사정, 사회적 지위 같은 현실과 부모의 욕망은 학생에게 너무나도 많은 요구를 한다. 날의 영혼은 자유로웠지만 아버지라는 억압기제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키딩의 "카르페 디엠"과 동굴에서의 회합은 날뿐만이 아닌 다른 학생들의 야생적 사고를 깨워놓는다. “본성대로(타고난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인간성의 가치인 사랑과 우정, 꿈을 위한 투쟁을 돕는 것이 아닌 간섭이라는 시스템은 분명 옳지 않다. 비록 나는 현재, 많이 보수적인 인간이 되어버렸지만,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야만 한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 시, 사랑, 우정, 음악 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시스템은 언제나 공격받게 되어있다.

이 영화를 수험생에게는 감상해보라고 추천을 못하겠다. 공부를 너무 잘해 카이스트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사실은 눈물이 날 정도로 농구감독이 되고 싶어 하는 내 동생에게는 그 아이가 클 때까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영화다.

---

### 김소연(간호학과 20162107)

찰리의 일에 대한 키딩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의 대화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교장선생님은 '이 곳의 교육과정은 훌륭함이 입증되었으니, 전통과 규율에 따르며 대학입시에만 전념하게' 라는 말을 하였다. 이 부분에서 나의 고등학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정말 입시에만 치중한 학습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교 시절의 나는 독서도 거의 하지 않았고, 시사상식도 부족했다. 그 외 다른 영역에서의 발전이 있었나 생각해보아도 이전의 내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만큼의 발전은 없었다고 본다. 그렇기에 고등학교 시절 동안 어떤 지적 발전이 있었냐고 묻는다면 오히려 퇴보만 한 것 같아 의미 없는 유년시절을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재수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흥미 없고, 의미 없는 공부를 계속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덕분에 대학교 시절을 가치 있게 보내야겠다는 잃었던 초심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지적 양식을 가득 채우고 발전이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카르페디엠— 현재를 즐겨라—을 나는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성적으로 인해 진로를 여러 번 바꾸어야 했다. 현재 꿈꾸는 간호사라는 직업은 정시원서를 넣으며 처음 생각해보게 된 꿈이었다. 처음에는 이 길로 가는 것에 만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품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취업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길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즐기기 위해서 생각해 낸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간호직을 모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난 현재의 내 상황에 만족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

## | 엠퍼러스 클럽

### 1. 감상 영화 소개 및 줄거리

영화감상 일시	2017년 4월 26일 수요일
영화감상 장소	기숙사
영화 제목	The Emperor's club
감독	Michael Hoffman
주연	Kevin Kline, Emile Hirsch, Joel Gretsch
영화 장르	드라마
줄거리	<p>헌더트 선생님의 교육인생에 가장 큰 아픔으로 기억되는 제자 세드윅 벨... 그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온다. 상원의원의 아들로, 학교에 온 첫날부터 말썽을 부렸던 문제아, 그가 지금은 거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어 자기회사 소유의 리조트로 스승과 옛 급우들을 모두 초대 한 것. 초대의 이유는 25년 전에 자신이 참가했던 교대 경시대회를 다시 열어 그때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p> <p>세인트 베네딕트 아카데미에서 매년 개최하는 '줄리어스 시저 경시대회'는 학부모와 내빈의 참석 하에 로마사에 관한 지식을 겨루는 권위 있는 대회로 예비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된 세 사람만이 마지막 자웅을 겨룰 수 있었다. 한 사람의 학생이라도 낙오자를 만들지 않길 바라는 선생님의 교육철학은 문제아 세드윅 벨에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도움을 야기지 않지만 결국 세드윅 벨의 배신행위로 그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아픔과 밝힐 수 없는 비밀을 남긴다. 그리고 25년 후, 다시 그때와 똑같은 상황은 재현되고 선생님은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는데...</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네이버 영화</p>

## 2. 영화를 보고 느낀 점

### 송인선(간호학과 20162134)

사실 처음에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 제목이 “Emperor's Child”인 줄 알았다. 내내 제목이 헨더트와 세드윅을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해서 높은 위치에 있는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자식들의 내용인 줄 알았다. 그런 그 두 명이 어떤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황제의 아들로써 사는 자들의 이야기’, 그런 것인 줄 알았다. 근데 영화를 다 보고 제목이 “Emperor's Club”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순간적으로, ‘아니, 왜?’ 라는 생각과 ‘영화 제목 제대로 지은 것 맞아?’ 라는 의심이 들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은” 영화제목이 더 그럴듯하게 보였다. 단지 단어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제목의 해석이 어려워졌다. Emperor는 누구인가. 왜 Club이라고 했는가. 모든 아이들이 줄리어스 시저 대회에서 황제가 되려고 노력한 것에서 제목의 나오는 Emperor가 줄리어스 시저 대회의 승자를 의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황제가 되기 위해 모여 공부한 아이들이 club을 형성한 것을 뜻하는 것 같다. 아니면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미래를 좌지우지하게 될 위인들이라 그들 자체를 emperor이라 미리 칭한 것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해본다. 또 이 영화를 보면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같이 떠올랐는데, 제목조차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나에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열심히 살던 학생이 자살하는 것이 아닌 끝까지 선생님께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선택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제로 항상 잘해온 학생보다 말썽을 피우는 학생이 개과천선하려고 할 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마틴이 아무리 열심히 해왔어도, 그는 선생님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학생이 아니어서 결국 밀려나게 된 것처럼 말이다. 마틴이 선생님을 용서한 것을 보면서 나도 나에게 상처 준 선생님들을 용서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헨더트는 첫날부터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면서 애들을 향한 관심을 표현했다. 오랫동안 베네딕트 학교에서 일해 왔기에 학생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알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향했던 애정과 헌신이 세드윅이 전학 오고부터 그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주었다. 인정과 관심이 부족했던 세드윅에게는 꼭 필요한 애정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선생님으로서 한 학생을 편애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을 동등하게 대해야 하는 소명을 어기게 했다. 그의 정직함, 청렴함도 세드윅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더 후한 점수를 준 순간 무너졌다. 세드윅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과 그의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사로서 충분히 타당해 보이지만, 그로 인해 마틴의 노력과 꿈, 미래를 무너뜨렸다는 것을 간과한 것은 잘못이었다.

영글 클럽(2017-1)

세드윅 이외의 학생들에게는 이성적이지만 세드윅에 한해서는 감정적이었다. 그는 “마틴”이란 제자를 실패(fail)하게 한 셈이다. 어쩌면 세드윅만큼 마틴도 무거운 짐을 가진 학생이었을 텐데(마틴의 아버지도 베네딕트 출신이고, 시저상을 받았었다.), 그에게는 세드윅만이 아픈 손가락이었다. 세드윅은 선생님에게 받는 이 특별 취급에 대해서 처음에는 좋았겠지만 혹시 자기가 아니라 아버지 때문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헨더트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은 것은 그가 본인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고, 단지 동병상련의 마음을 일방적으로 느끼며 표현했기 때문이다. 세드윅은 결국 원래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갔다. 영악하고 세속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되어 헨더트를 비웃는 듯한 쇼를 준비했다. 그리고 선과 원칙의 기준에 따라 살아와봤자 결국 자기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 고개 숙인 약자인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할 것이라 소리친다. 반면에, 헨더트가 버린 마틴은 끝까지 헨더트에게 존경심을 표한다. 마틴도 서운한 것이 참 많았을 텐데도 그는 작은 것에 감사했다. 추천서를 잘 써주셔서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된 것에도 감사하며, 나중에 원래 시저대회에 나갈 사람이 자신임을 깨달았어도 선생님을 용서해 주었다. 비록 헨더트는 마틴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 기회를 앗아 갔지만, 누구보다 헨더트의 철학과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그것을 인격으로 형성한 것은 결국 마틴이었다. 그랬기에 헨더트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자식 또한 헨더트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로 보낸 것 같다. 이를 보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의 부족함에 집중하지 않고 좋은 점을 보며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 김소연(간호학과 20162107)

이 영화를 보고 난 학생의 입장에 있기에 헨더트 교수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다. 교육내용의 전달 측면에 있어서 헨더트의 수업방식은 아주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답방식의 수업 진행으로 학생들의 집중력과 흥미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어찌 보면 주입식 교육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목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또, 학생들에게 감정을 실어서 교과서 낭독을 시키는 방식 역시 각 배역을 맡은 학생들이 그 인물에 입장에서 사고해보도록 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또 학급친구들은 친구가 읽는 것이기에 더욱 재미나게 내용에 몰입할 수 있다. 수업시간에 교과서를 낭독하는 시간에 자신이 맡은 배역에 대해 다른 입장으로 보이는 세드윅에게 대화하고 예시를 들며 가르치는 모습은 학생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방법으로는 아주 좋았다. 그러나 세드윅이 끝까지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방식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채 수업 종료 종이 울려 그와의 대화를 마친 부분은 좀 아쉬웠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세드윅이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이끄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학생과의 관계 측면에서도 생각해보았는데, 보도가 아닌 길로 걷는 학생을 불러 세워 꾸짖는 것이 아니라 보도의 정의가 무엇인가 돌려 물으면서 학생을 타이르는 방법으로 행동을 고치도록 하는 것은 학생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또 학생들과 함께 야구를 하고, 사고를 치자 도망치는 모습은 학생들과의 관계 역시 원만한 편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세드윅의 친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점도 있지만, 25년 후에 만남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세드윅이 손가락을 들어 뒤로 던지는 행위를 모두 따라 하는 점에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조금 결여된 점이 있지 않나 싶다.

헨더트는 교사로서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지만 헨더트라는 사람으로는 실패한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는 사랑하는 이를 평생의 반려자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함에도 기회를 놓쳐 결국 그녀는 다른 이와 혼인하였었다. 다행히 후에 그녀와 재혼할 수 있었던 면에서 운은 참 좋은 인물인 것 같다. 그러나 그 외의 대인관계는 실패하였다 볼 수 있다. 오랜 동무였던 전직 교장의 죽음 후에 최적의 교장후보로 큰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러나 이사회 회의날 그는 믿어왔던 엘리비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헨더트가 교장이 될 수 있도록 가장 힘써주고 응원해주던 엘리비는 알고 보니 헨더트를 이용해왔던 것이었다.



영어 클럽(2017-1)

---

영화를 통해 교사라는 자리의 무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까지 자라면서 만나온 수많은 인연들 중 기억에 남는 인물들을 꼽자면 대부분 그 동안 나를 가르쳐주셨던 선생님들일 것이다. 그만큼 선생님이란 자리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그들의 사소한 행위만으로도 그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나만해도 초등학교 시절에는 매우 소극적인 아이였다. 점차 바뀌어나가긴 했지만 특히나 수업시간에 발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괜히 나의 의견을 발표했다가 망신을 당할 것 같아 수업시간에는 특히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런 내 모습에 큰 변화를 준 건 한 국어선생님의 한마디 덕분이었다. 선생님은 발표 전 틀려도 괜찮다며 말해보라고 하셨다. 정말 사소한 한마디였지만 당시 나에게는 큰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었고, 그 이후로 나는 수업시간에 발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모여서 후에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말하기대회에도 참가하고 수상할 수 있도록 날 변화시켜준 기반이 되어준 것 같다.

---

## 박예주(간호학과 201621216)

‘결과는 시작에 의해 결정된다’

이 영화 초반부의 이 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한 학생의 개과천선 같은 사람들이 편한 마음으로 영화를 끝낼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잘못을 교정하지 못한, 실패한 교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는 도덕성이 변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교육의 역할인데, 비록 하나의 실수가 있었지만 다른 학생들의 성장이 헌터트 교사의 교육 인생의 공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의 미숙함과 무식은 교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으며 술 취한 것은 깰 수 있다. 하지만, 멍청한 것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 영화 초반에 나오는 선생님의 이 대사는 이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세드워 벨은 친구들을 선동하여 교칙을 위하는 짓을 하고 다닐 뿐 공부에는 영 흥미 없어 한다. 특히 학교 수업을 우습게 본다는 것을 선생님은 안다. 그래서 선생님은 벨에게 너와 어울리고 있는 너의 친구들은 너와는 다르게 공부하며 놀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킨 후 이 말을 한 것이다.

그 후 벨은 자극을 받아 로마사 공부를 열심히 한다. 선생님은 벨이 공부를 하면서 교칙위반도 하지 않고, 말썽도 부리지 않자 [변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의 모습에 흡족해 하며 자신이 학생 때 보던 책을 빌려주기도 한다. 줄리어스 시저를 뽑는 대회에서도 그가 자격이 되지 않음을 알지만, 자신이 변화시킨 그를 "줄리어스 시저"가 되게 하여 교육을 통해 문제아를 바로잡았음을 보여주고 싶어, 성적조작을 한다. 그러나 선생님은 자기환상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다. 세드워 벨은 공부를 위한 공부, 자신의 명예를 위한 공부를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벨은 컨닝을 한다. 이전엔 말썽으로 주목 받았다면 이번에 "줄리어스 시저"로 다른 아이들보다 항상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그것이 잘못된 것 인줄 알지만 개의치 않는다. 방법이 어떻든 그는 '최고'이기만 하면 되는 학생이었던 것이다.

영화에서 보여지듯 수단과 목적으로 인문학을 하려 했던 세드워 벨은 외향적인 모습은 화려하고 부러움을 살 지도 모르나 내면적으로는 괴물이 되고 말았다. 돈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나머지-도덕심, 인격, 자신의 철학-은 뒷전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본 모습을 아들에게 들리게 되었을 때 당혹스러워 하고 만다. 벨은 자식에게조차 떳떳할 수 없는 삶.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 화려함에 평생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가게 될 지도 모른다.

영글 클럽(2017-1)

---

반면, 인문학을 공부하며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은 블라이스는 경제적으로는 벨보다 풍요롭지 못하고 신문에 이름이 나오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 전학을 보내게 된 것이다. 인문학이란 옛 선조부터 지금까지 전해오는 '지혜'의 축약이다. 블라이스는 '줄리어스 시저'가 되기 위해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이 더 인간답기 위해 지켜왔던 것들, 고민하고 연구했던 것들을 느끼고 따르게 되었던 것이다. 벨과 블라이스는 '줄리어스 시저'를 목표로 하였던 것은 같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것을 얻었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너무나도 다른 삶으로 이끌어 가게 된 것이다. 수단과 목적이 아닌 지혜를 본다면 삶을 슬기롭고 현명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 마션

### 1. 감상 영화 소개 및 줄거리

영화감상 일시	2017년 5월 27일 토요일
영화감상 장소	현암기념관 도서관
영화 제목	마션
감독	Ridley Scott
주연	Matt Damon, Jessica Chastain, Kristen Wiig
영화 장르	드라마, 어드벤처, Sci-fi
줄거리	<p><b>포기란 없다!</b> <b>반드시 지구로 돌아갈 것이다!</b></p> <p>NASA 아레스3탐사대는 화성을 탐사하던 중 모래폭풍을 만나고 팀원 마크 와트니가 사망했다고 판단, 그를 남기고 떠난다.</p> <p>극적으로 생존한 마크 와트니는 남은 식량과 기발한 재치로 화성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으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려 노력한다.</p> <p>마침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지구에 알리게 된 마크 와트니</p> <p>NASA는 총력을 기울여 마크 와트니를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아레스 3 탐사대 또한 그를 구출하기 위해 그들만의 방법을 찾게 되는데...</p> <p>전세계가 바라는 마크 와트니의 지구 귀환! 그는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네이버 영화</p>

## 2. 영화를 보고 느낀 점

### 송인선(간호학과 20162134)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죽은 줄 아는 체로 산소도, 식량도 없는 화성에서 혼자 몇 년을 버텨야 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떻게라도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칠까 아님 어차피 '죽은' 인생을 포기 해버릴까. 모두에게 잊히고 정리 되어가는 한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주인공 마크 와트니를 보면서 문득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과 우주 비행사들, 여러 국가 전문가들이 모여 고민하고 협력하는데, 이를 통해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영화 "마션"은 우리에게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묻는 것 같았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힘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쳐 나갈지 제시해주기도 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우리가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 살기 힘든 화성에서도 주어진 하루하루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 아무도 없는 그 곳에서의 삶은 사형선고와도 같을 것이다. 주변을 의식하고, 주변의 평가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혼자 사는 것은 의미가 없고,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은 두 번 죽는 것과 다름없는 일일 것이다.

두 번째로,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마크를 위해 엄청난 자원과 돈이 소모되었고, 심지어 그를 구하러 가기 위해 그의 동료들은 목숨을 걸었다. 국민들의 원망을 듣게 될까, 후원금을 못 받게 될까 만을 걱정하는 NASA 국장은 마크를 단순히 상품 취급을 한 반면, 자기 부하 직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우주에 나가는 대장과 직장을 포기한 상사는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길 줄 알았다. 하지만 나라면 전자도 후자도 아닌 중간 정도의 위치에 섰을 것 같다. 과연 마크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자원을 쓰는 것이 맞을까? 지구에서 배고픔 때문에 고통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정의인지에 대해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영화적 요소를 위한 과한 설정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마크에게는 유감스럽지만,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다른 여러 명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가 대장이었다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나머지 대원들을 위험에 빠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나의 최종 선택이겠지만, 동시에 나의 한계인 것 같다.

영어 클럽(2017-1)

마지막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영화의 끝 부분에 좋은 명언이 있었다. 마크가 지구로 돌아와서 교육을 받게 된 학생들에게 해준 말인데, “포기해 버리고 죽을 것이 아니라면,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살 수가 있다. 무작정 시작하는 거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다음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렇게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집으로 갈 수 있다.” 이었다. 이 대사가 영화를 통틀어 가장 나에게 와 닿았는데, 포기할 것이 아니면 노력해야 한다는 말과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집으로 올 수 있다는 말 때문이다.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드는 생각은 “여기서 포기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내가 살고 싶은 삶인가.” 뿐이다. 근데 포기할 수는 없을 때, 이 대사를 기억하고 “그러면 노력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공부들도, 도대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힘든 시험들도 하나씩 해결하면 결국 종강과 함께 집에 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또, “우주에선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무작정 시작해 보는 거지.”라는 대사가 있었다. 뜻대로 되는 것이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 그러면 화성에서 살아남는 것과 같이 인생의 엄청난 역경과 고난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마크처럼 자기 취향도 아닌 음악을 유일한 오락 삼아 외로움과 불안감을 견디면서, 열심히 길러오던 농작물들이 한 순간에 다 얼어 식량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도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영화 끝에서 마크는 현명하고 성숙한 지도자로 나왔다. 화성에서의 경험이 그를 더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모든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다. 결국 인생의 매 순간이 나를 더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기회인 것이다. ”이 언덕을 오르는 것도 최초이고 내 발길이 닿는 곳은 모두 최초가 된다. 45억 년 동안 이곳엔 아무도 없었지만, 지금은 내가 있다.“ 마크처럼 나도 나의 화성을 찾아서, 그곳을 정복하고, 최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

### 김소연(간호학과 20162107)

영화 마션은 줄거리는 NASA 아레스3탐사대가 화성을 탐사하던 중 모래폭풍을 만나고 팀원 마크 와트니가 사망했다고 판단하여 마크를 화성에 남기고 떠나게 된다. 다행히 피가 굳어 뚫린 우주복을 막아 생존한 마크 와트니는 남은 식량과 기발한 재치로 화성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으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려 노력한다. 마침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지구에 알리게 되고 NASA는 총력을 기울여 그를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마침내 구출에 성공해 지구로 돌아오는 내용이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화성에 홀로 남겨진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고독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최근 웹툰에서도 이와 비슷한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의 고독에 대해 다룬 작품을 보고 있기에 더욱 흥미롭게 감상하였다. 이를 보며 인간은 진정 사회적 동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 관계를 맺어 함께 도우며 살아가며 삶의 가치를 느끼는 동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구와 소통하기 이전의 홀로 화성에서 생활할 때의 모습은 상당히 고독하고 피폐하였기 때문이다. 점차 지구와 소통할 방법을 찾아가며 그는 하루하루 생기를 얻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화의 마지막으로 가며 중국의 우주기술을 상당히 높이 사는 듯한 내용이 나왔다. 현재는 중국이 많이 발전해나가고 있기는 하나 영화가 촬영되었을 시기를 고려했을 때, 중국의 기술력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무래도 영화제작에 대규모 중국자본의 투입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

---

### 박예주(간호학과 201621216)

나사의 엘리트들이 대거로 나오는 영화다. 나는 자연스레 주인공의 지위-우주비행사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지는 일반인들도 대충은 안다- 인성, 의지 같은 데에 먼저 눈이 갔다. 물론 이 영화의 주제가 개인의 의지와 사회적 도덕이라 더욱 조명되기도 했지만 말이다. 살기 위해 머리를 끊임없이 굴리고 계획을 짜며, 시도해보고 실패하지만 다시 도전을 반복하고.. 진짜 실패(죽음, 도덕적 타락, 집단의 외면 등)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즉 결국은 이겨낸 역경이 나온다는 점에서 통과한 어드벤처 영화인 셈이다. 최근 내게 부족했던 삶에 대한 의지 같은 것을 넣어준 점에서 감상에 시간을 쓴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영화가 액션 무비인 것 같지만.. 나름의 처절한 생존영화다. 그의 타고난 유쾌한 성격은 그가 영화 내내 재잘거리는데 일조했지만 아마 그가 미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도 했을 것이다. 영상일지 또한 단순히 영화적 장치가 아닌 그가 스스로 삶의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한 것 일 테다. 그를 화성에 갈 수 있게 만들어 준 힘도 유머지만, 살아 돌아오게 만든 힘도 유머인 셈이다. 나는 얼마나 찡그리고 과묵하게 사는지, 주변사람들에게 감정표현을 절제하는지를 돌아보며, 기왕 사는 거 좀 더 즐겁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 무리데쓰 팀 최종보고서

### 1. 프로그램 개요

- 1) 프로그램 명 : 영어 클럽
- 2) 참여자 : 김소연(간호학과 16) 박예주(간호학과 16) 송인선(간호학과 16)
- 3) 활동 현황
  - 가. 활동 횟수 : 총 4회
  - 나. 활동 기간: 2017년 4월 1일 ~ 2017년 5월 27일 (총 25시간)

### 2. 활동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2017.4.1	10:00-21:00	롯데시네마	영화 '로'건 감상 및 토의. 함께 조조로 영화를 보고 밥을 먹으면서 영화에 대한 평을 나누었다. 그리고 카페에서 디저트를 먹으면서 다음 영화와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하였다.
2017.4.14	17:00-22:00	학생 식당 및 기숙사	같이 송우리에 나가서 저녁식사와 디저트를 먹고 기숙사에 모여서 한 명의 컴퓨터로 영화를 보았다. '죽은 시인의 사회'를 감상하고 감상평을 나누었다.
2017.4.26	19:00-23:00	기숙사	중간고사가 끝나고 바로 모여서 저녁식사를 하러 나갔다. 그리고 각자 보기로 했던 영화 '엠퍼러스 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카페에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쉬었다.
2017.5.27	13:00-18:00	학교 도서관 및 기숙사	그 전날 석식을 먹고 도서관에 가서 영화 마션을 보았는데, 9시에 문을 닫는 바람에 나머지는 기숙사에 돌아와서 끝냈다. 그래서 다음날인 27일에는 같이 서울에 나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2. 프로그램 소감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는 평소 간호학과 공부로 지친 우리에게 문화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지원금을 가지고 각 종 영화관(4DX, 3D, IMAX 등)을 다니면서 새로 개봉하는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눌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막상 첫 모임에서 볼 영화를 고르는데 생각보다 올해 상반기에 개봉하는 영화 중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몇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로건’을 보고 영화관은 소리의 웅장함과 액션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지만, 영화 선택에 너무 제한돼있다는 것을 느끼고 차라리 고전 영화 중에서 좋은 작품을 보기로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컴퓨터에서 영화를 함께 보고 맛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카페에서 디저트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 다음 영화는 같이 송우리에 나가서 저녁식사와 디저트를 먹고 기숙사에 모여서 한 명의 컴퓨터로 영화를 보았다.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았는데 이것은 꽤나 유명한 영화고 본지 모두 본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같이 보기로 했다. 역시 맛있는 것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더 좋았다.

그 다음 모임은 시험기간이라서 시험이 끝난 날 모였는데, 미리 영화를 각자 봐두기로 했기 때문에 바로 시내로 나가서 저녁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험기간에 받은 스트레스를 이야기와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었다. 마지막 모임은 기말시험이 되기 전에 모이자고 해서 금요일 저녁에 석식을 먹고 도서관에 가서 영화 마션을 보았는데, 9시에 문을 닫는 바람에 나머지는 기숙사에 돌아와서 끝냈다. 그리고 하나만 본 것이 아쉬워서 영화를 하나 더 보았다. 그리고 다음날인 27일에는 같이 서울에 나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보고서를 쓰면서 영화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고 서로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영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 송인선(간호학과 20162134)

같이 영화를 보니까 혼자 보는 것보다 확실히 더 재미 있었다. 특히 약간 재미없는 부분도 친구들과 보니까 넘기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 같다. 원래도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보니까 더 즐거웠다. 다음 학기에도 또 참여하고 싶은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 김소연(간호학과 20162107)

영화를 단순히 보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내용에 대해서 토로하며 서로의 가치관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매우 유익했던 것 같다.

### 박예주(간호학과 20162107)

나는 본래 영화를 찾아보는 타입이 아닌데 이번 학기에는 이 활동을 계기로 영화를 그나마 좀 많이 보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영화 감상문을 쓰면서 영화 볼 때는 인식하지 못했던 나만의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다. 덤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당 덕분에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았다. 이런 문화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학기에도 또 지원하고 싶다.

3. 활동사진



### III. 송지연, 최지혜 학생의 활동보고서

##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 1. 감상 영화 소개 및 줄거리

영화감상 일시	2017년 5월 27일 토요일
영화감상 장소	CGV 청담 씨네시티
영화 제목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감독	요아킴 뢰닝
주연	조니 뎀, 하비에르 바르뎀, 제프리 러쉬, 브렌튼 스웨이츠, 카야 스킨라리오
영화 장르	액션
줄거리	<p><b>죽음마저 집어삼킨 복수가 시작된다!</b></p> <p>전설적인 해적 캡틴 ‘잭 스페로우’ (조니 뎀)의 눈 앞에 죽음마저 집어삼킨 바다의 학살자 ‘살라자르’ (하비에르 바르뎀)가 복수를 위해 찾아온다. 둘 사이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 잭은 자신과 동료들의 죽음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시작하는데...</p> <p>지금, 모든 것을 압도할 거대한 전투가 펼쳐진다!</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네이버 영화</p>

## 2. 영화를 보고 느낀 점

### 송지연(약학과 20145120)

디즈니랜드 놀이기구에서 출발한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는 현재까지 21세기 최고의 액션 어드벤처 시리즈라는 수식이 과분하지 않다. <블랙 펄의 저주>, <망자의 함>, <세상의 끝에서>로 이어지는 시리즈는 특유의 캐릭터와 분위기로 전 세계 팬들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 배우 조니 뎁과 제작자 제리 브룩하이머, 감독 고어 버빈스키, 음악감독 한스 짐머 등 관련된 모든 면면들의 인기와 명성도 어마어마했다.

2011년 <낯선 조류> 이후 6년 만에 돌아온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시리즈 팬들에게 대단한 희소식이었다. 조니 뎁과 제프리 러쉬는 물론 원년 멤버인 올랜도 블룸과 키이라 나이틀리가 돌아오고, 브렌튼 스웨이츠와 카야 스코델라리오, 하비에르 바르뎀까지의 배우들이 힘을 모았다. 본토에서는 정식 개봉을 두 달이나 남겨두고 시사회를 개최하는 등 일찍이 자신감을 드러냈던 영화가 바로 이번 5편이었다.

평소처럼 배도 선원도 없이 문제만 일으키고 다니는 우리의 캡틴 잭. 그러던 어느 날 나침반의 저주에 걸려 있던 죽은 자들과 캡틴 살라자르가 봉인에서 풀려난다. 복수를 위해 자신을 쫓는 그들에게 맞설 캡틴 잭의 유일한 무기는 전설 속에 등장하는 포세이돈의 삼지창. 살라자르에 맞서려는 잭, 아버지를 구하려는 헨리, 출생의 비밀을 밝히려는 카리나, 바다를 지배하려는 정부까지, 그렇게 가진 자는 바다의 주인이 된다는 삼지창을 쫓는 모험이 시작된다. 월 터너의 플라잉 더치맨과 함께 시작되는 영화는 그토록 기다렸던, <캐리비안의 해적>만이 선사할 수 있었던 전조를 한껏 내뿜는다. 바다와 괴물, 전설과 선장들이 한데 모여 다시 없을 모험의 장을 예고하는 듯 하다. 한때 전 세계 영화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로 꼽혔던 조니 뎁의 잭 스페로우의 첫 등장만으로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뛰게 했을 것이다. 늙지도 바래지도 않은 그의 외모와 녀살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 흥분이 무너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한때는 영화의 스케일을 범접할 수 없는 영역으로 끌어올렸던 제작자 제리 브룩하이머의 스타일은 집 한 채를 끌고 도심을 질주하는 초반부부터 한계를 드러낸다. 디즈니를 휘청이게 했던 <론 레인저> 때와 마찬가지로, 필요 이상으로 키운 스케일로 제작비를 낭비하는 듯한 인상이 여기저기 가득하다. 장면을 구성하고 제작비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제작비를 미리 왕창 받아놓고 그걸 어떻게든 다 쓰려고 하는 모양새로 보일 정도였다.

이번 <죽은 자는 말이 없다>의 각본에선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꼽아 볼 수 있다. 기존 3부작과의 연결성, 그리고 독립된 액션 어드벤처로서의 구색이 그 주인공이다. 전자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번 영화의 감독들은 기존 3부작을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관심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캐릭터만 일부 빌려 왔을 뿐 그들 사이의 감정선은 물론 주요 소재들의 일관성도 전혀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 되는 잭의 나침반이다. 이번 영화에선 1편부터 지니고 다녔던 이 나침반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식으로 묘사되는데, 기존의 작품들에서는 이미 잭의 나침반을 노리고 접근하는 세력이 있었을 정도로 한 번 주목의 대상이 되었던 존재이다. 그러나 불현듯 등장한 저주 설정이나 자신의 모자만큼이나 소중한 여겼던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내버리는 잭 등 이 나침반이 그 나침반이 맞나 싶은 무리수가 범람한다. 애초에 살라자르가 저주에 걸린 이유라는 설정부터 납득하기 어렵다.

바다의 모든 저주를 한 방에 풀어 버린다는 포세이돈의 삼지창, 붉은 달빛을 받으면 그 전설의 무기가 있는 곳을 대놓고 알려주는 카리나의 수첩 등 새로이 등장한 소재들은 그 존재만으로 캐릭터들과 각본의 위기를 단박에 해결해 버리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스러운) 속성이 지나치게 강하다. 아무도 안 믿지만 나는 믿는다고 하면, 아버지가 졌다고 하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뻔뻔함은 해적 소재에 따라붙는 보물찾기의 매력도 반감해 버리고 만다. 설정 구멍은 설정 구멍을 넣고, 송송 뚫린 구멍들은 개연성과 설득력 모두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악당'을 주인공으로 설정하는 영화들이 저지르는 오류마저도 빠지지 않았다. 해적들은 엄밀히 말해 악당이므로 그들과 맞서는 지금까지의 악당들은 같은 해적이거나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사육 혹은 수단이 따라붙곤 했다. 하지만 바다 위 해적들을 전부 다 없애는 것이 목표인 살라자르는 단순히 주인공에게 맞섰다는 이유로 악당으로 설정되어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1차원적 개체로 전락한다. 갖고 있는 전투력과 능력을 비롯한 잠재력을 반도 발휘하지 못한 것은 둘째치고 말이다.

캐릭터도 사건도 살리지 못한 129분의 러닝타임엔 공허함만이 가득하다. 모두를 주인공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모두를 뒷전으로 밀려나게 만들었다. 돌이켜 보면 그 누구의 이야기라고도 정의 내릴 수 없는 중구난방식의 영화가 되지 않았나 싶다.

### 최지혜(약학과 20145138)

포세이돈의 창이 그려진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영화의 막이 오른다. 아버지 월 터너의 저주를 풀기 위해 어린 헨리 터너는 온갖 문헌들을 수소문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저주를 받은 후로 몇 년의 세월이 지났는지를 세고 있었으며 12살이 되던 해 어느 날 밤 일부러 아버지와 만나기 위해 다리에 돌을 묶고 바다에 빠진다. 그렇게 가라 앉던 어린 헨리가 착지한 곳은 바로 플라잉 더치맨 호의 갑판. 얼굴에 따개비가 붙어 있는 자신의 아버지 월 터너와 만나 '포세이돈의 삼지창을 찾으면 바다의 모든 저주를 풀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 주지만 '난 저주 받았으니 더 이상 날 찾아오지 말고 바다에서 얼씬거리지 말라'만 듣고는 수면 위로 내쫓길 뿐이었다. 월의 말과 함께 플라잉 더치맨이 잠수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의지를 굳힌다. 1편을 제외하고 2, 3, 4편이 토마토가 썩었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4편까지는 기존 캐릭터성이 잘 유지되고 있었다, 허술하지만 재치 넘치면서도 여유로우며 교활하고 능청맞게 일을 해결하는 책과 냉혹하지만 유머러스하고 책 못지 않은 계략가에 카리스마 있는 악당 헥터가 극을 중점적으로 이끌고 있어줬다. 특히 4편은 기존의 캐릭터들이 빠지고 이 두 캐릭터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전보다도 이게 부각되어서 신선한 면도 있었다. 책 스페로우와 헥터 바르보사 같은 기존 등장인물들도 영화의 새로운 배경에 맞춰서 약간의 변화를 주되, (전편과 비교해서) 본래의 캐릭터성을 비교적 잘 보존하려고 한 노력의 흔적이 군데군데 보이는 데다가, 적어도 4편은 이 둘을 중심으로 한 아기자기한 일종의 버디무비적 소품으로서 매력요소가 있었다. 3편에서 더치맨과 블랙펠이 장관의 결전을 벌인 것에 비해 비록 스케일이 대폭 작아지고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교체되어 외전 격의 분위기를 풍기던 4편이 '해적이 육지에서 보물 찾거나 한다'며 '캐리비안의 산적'이라는 식의 비난을 받긴 했으나, 전편과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일부러 의도하기라도 한 듯 인어들을 내세운 나름대로 매력적으로 신선한 연출도 보여주었고 새로운 등장인물들의 비중 분배도 납득이 갈 정도로 무난히 배치해 내는 등 그래도 이점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는 평도 분명 있었다. 무엇보다 감독이 바뀌면서 작품 특유의 분위기가 새로 환기되었다는 말도 존재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5편은 희대의 매력적인 캐릭터 책 스페로우를 완전히 잘못 사용했다. 그 동안 수많은 활약과 함께 악역에게 막타를 넣었던 책을 이렇다 할 활약도 없이 그저 따라 다니면서 간간히 개그와 술주정을 하는 감초로 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주인공인 잭 스페로우는 흑평 속의 4편에서조차도 그대로 유지되었던 '허술함을 의도한 천재 캐릭터'라는 설정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저 농담 따먹기나 하는 주정뱅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되었으며, 오죽하면 블랙 펄과 카리나와 바르보사가 5편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란 말도 있을 정도. 고스트 샤크는 지난 시리즈의 크라켄 만큼의 임팩트가 없었고 악역인 살라자르는 마치 톰과 제리를 보는 것처럼 해적들의 농간에 맨날 속아주며 킹왕짱 능력 한번 못쓰고 불의에 객사한다. 하비에르 바르뎀같이 좀 제대로 된 연출, 각본만 주면 알아서 포스 줄줄 내뿜을 배우 데리고 와서 이게 무슨 짓거리인가?

거기다 시리즈 내 그나마 해적 같은 비열함과 재치를 보여줬던 바르보사가 뜬금없는 부성애를 위한 희생이라니? 비록 뻘짓거리긴 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카리스마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시리즈 내내 스페로우 이상 급으로 활약하던 바르보사는 기존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작중 내내 살라자르에게 붙들려 초조해 하는 겁쟁이가 되었으며, 심지어 4편에서 냉혹하고 교활한 계략과 인내를 통해서 얻은 희대의 사기 함선을 몰고도 변변한 저항 한 번 안하고 블랙펄을 얻기 전까지 살라자르에게 협박이나 당하고 있어 카리스마에 많은 손상을 입었다. 기존 시리즈에서 바르보사란 캐릭터에 매력을 느낀 팬들이라면 나쁜 의미로 눈물을 흘릴 정도. 4편 마지막에서 해적 선장답게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위풍당당하던 헥터와 5편의 헥터를 비교하면 같은 캐릭터 맞나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잭도 잭이지만 헥터는 캐릭터성에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새로운 등장인물인 카리나와 헨리의 경우도 까놓고 말하면 4편의 안젤리카보다도 못하다. 쓸데없는 하이틴 로맨스 내지 낱아빠진 클리셰의 신파극을 줄곧 퍼는 바람에 전개가 질질 늘어져서 몰입에 방해가 되었다고 한 사람이 있었을 정도로 평이 좋지 않다. 차라리 전편에 나왔던 인어들은 비중도 비중이지만 신선한 연출이라며 관객들로부터 화제거리라도 되었으나, 이들은 설정상 매우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활약 없이 간간히 썰렁한 대사나 치면서 보물 타령이나 하는 것으로 그쳤다. 카리나는 엘리자베스 스완을 잇는 당찬 여성상이라는 것 자체는 호평이지만 뜬금없는 갑툭튀 설정으로 바르보사의 딸이라는 설정이 붙으면서 이상해졌다. 그 넓은 캐리비안에서 서로 모르고 지냈던 아버지와 딸이 한 배에서 만나서 신파극 찍을 확률이? 이 설정 덕분에 그냥 카리나나 헥터나 얘기도 없던 신파 거리 꺼내 드느라고 5편 후반에 스토리나 캐릭터가 누더기 변명 더미가 되어버렸다. 헨리 터너야 이전 시리즈에서의 인연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캐릭터라 그렇다 쳐도 이전 시리즈 영화들에서 바르보사가 딸 이야기나 과거 아내 이야기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이러지는 않았겠다.

영글 클럽(2017-1)

---

한 마디로 5편에서 헥터는 뜬금 감성 팔이하는 노친네가 되었고 잭은 블랙펠 찾을 생각도 못하고 20여 년 동안 럼주만 마시다가 드디어 맛이 갔는지 그렇게 중요히 여기던 지 나침반도 초반부터 술 좀 마신다고 팔아먹어서 일을 만드는 등 헤롱헤롱 맛이 가서 비중도 없는 술주정뱅이 개그조연 A에 불과하다. 캐릭터성을 억지로 뜯어고치다 보니 스토리는 중구난방에다가 앞뒤 안 맞는 것 투성이고 설정도 요상해진데다가 배경은 왜 20여 년 후로 잡아서 헥터랑 잭 둘 다 퇴물로 만들었는지 도통 이해가 안가는 수준이며 그나마 헥터는 초반부에는 좀 많이 띄워주기라도 했지 잭 선장은... 감독과 각본가들이 솔직히 1~4편을 봤는지조차 의심이 되는 지경이다.

---

## 캐리비안의 해적: 낫선 조류

### 1. 감상 영화 소개 및 줄거리

영화감상 일시	2017년 5월 28일 일요일
영화감상 장소	최지혜 조원의 집
영화 제목	캐리비안의 해적: 낫선 조류
감독	롭 마샬
주연	조니뎀, 페넬로페 크루즈, 이안맥쉐인, 제프리러쉬
영화 장르	모험, 코미디, 액션, 판타지
줄거리	<p>그 명성을 넘어 그들이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다!!</p> <p>영원한 젊음을 선사한다는 샘을 찾아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 캡틴 잭 스페로우... 사랑인지 사기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안젤리카.. 바다를 공포의 대상으로 만든 냉혹한 해적 검은 수염과 아름답지만 잔인한 바다의 괴수 같은 배 '앤 여왕의 복수' 호... 다시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와 초자연적인 대혼란의 거대한 막이 오른다!</p> <p>[출처] 네이버 영화</p>

## 2. 영화를 보고 느낀 점

### 송지연(약학과 20145120)

일반적으로 시리즈로 나오는 영화의 경우 항상 나중 작품이 전작에 비해 못한 경우가 많기에 캐리비안의 해적은 1,2,3편까지 본 후 더 이상 보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개봉한 '캐리비안의 해적5편 - 죽은 자는 말이 없다'를 꽤 재미있게 보게 되어 전작인 '캐리비안의 해적 - 낚선 조류'편이 궁금해져 이번 기회에 감상하였다. 그런데 너무 기대가 컸던 탓일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 이게 딱 내가 이 영화를 본 소감이었다. 먼저 이 영화의 특징은 이전 시리즈에서 등장하던 Beast는 사라지고, Beauty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캐리비안의 해적4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번 편에서는 전작과 달리 인어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처음에 캐리비안의 해적과 인어라니 굉장히 상이한 캐릭터라고 생각했다. 영화를 본 후 이 생각은 역시나였다. 전작에서는 문어와 같은 얼굴을 한 더치맨의 선장 데비존스라던가 괴물 크라켄 등 생김새부터 독특한 Beast들이 나와서 판타지 액션의 재미를 극으로 살려주었다. 하지만 캐리비안의 해적4에서는 이 괴물들이 사라지고 예쁜 인어들만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다. 인어들의 판타지적인 요소라고 해봤자 천녀유혼에서 귀신들이 남자들을 흘려서 잡아먹는 것처럼 뱀사람들을 흘려서 잡아먹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액션이랄 것도 없다. 인어들이 그냥 예쁘기만 하고 스펙터클하지 못했다. 만화 속에서나 보던 인어를 매우 잘 구현했지만 젊음의 샘까지 가는 여정의 가장 큰 벽이라 하기에는 인어의 자질이 좀 부족해 보였던 것은 어쩔 수 없다. 물론 모델계를 은퇴했던 켈리 마워드가 출연해서 우와 정말 예쁜 인어가 나오나 했지만 정말 그 뿐이었다.

인어이야기를 더 하자면 월트디즈니사의 인어공주 스토리를 생각나게 한다.물에 빠진 인어공주를 구한 왕자, 왕자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물거품이 되는 인어공주 이야기는 누구나 어렸을 때 한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동화 속 이야기가 모험과 판타지 영화인 캐리비안의 해적4에도 나온다. 바로 선교사와 착한 인어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인어의 눈물이 필요한 잭 스페로우와 검은 수염 일당이 인어를 붙잡았지만, 불쌍한 인어를 위해 몸소 희생하는 선교사와 또 그런 선교사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인어가 바로 그것이다. 이 영화에 대한 나의 기대는 인어의 사랑이야기가 아니었기에 나로서는 적잖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위에 언급했듯이 인어는 예뻐고 선교사는 잘생겼다. 하지만 그들의 러브스토리는 캐리비안의 해적4에 대한 내 기대를 무너뜨렸다.

또 조연 캐스팅의 미약함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을 생각하면 누구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잭 스페로우 선장이다. 조니덱만이 소화할 수 있는 잭 스페로우 선장이 바로 캐리비안의 해적 top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해적의 모습이 아니라 괴짜스러우면서도 유머러스하고 언제나 캡틴을 외치는 잭 스페로우의 모습은 정겨우면서도 친근하기 까지 했다. 하지만 나는 캐리비안의 해적이 잭 스페로우만의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잭 스페로우의 역할이 크지만 그와 함께 극을 이끌어가는 조연들의 역할도 매우 크다. 잭 스페로우가 5할이라면 나머지 배우들이 바로 5할이라고 본다. 그런데 캐리비안의 해적4에서는 그 5할이 빠진 느낌이다. 물론 여주인공인 페넬로페 크루즈의 캐스팅은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싶다. 키이라 나이틀리보다 외적인 요소로 따져보자면 해적이미지에 더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조니 덱과도 더 조우가 잘 되기 때문에 페넬로페 크루즈의 섭외는 탁월했다. 그런데 이게 전부였다. 캐리비안의 해적4에서 악역으로 등장한 검은 수염의 경우에는 이전 작들의 악역에 비해 포스가 약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카리스마도 덜했고 악역이라 하기에는 확실히 부족했다. 그러다보니 그 외의 출연자들 또한 눈에 띄는 캐릭터가 없었다. 이전 작들의 조연을 살펴보자면 바르보사의 부하들부터 시작해서, 주윤발, 칼립소, 크라켄, 데비존스 등등 눈에 띄는 캐릭터가 매우 많았다. 각자의 매력 또한 독특했고 스케일 또한 컸던 3편과 달리 캐리비안의 해적4는 아쉬움이 많다. 아무래도 캐리비안의 해적4는 그 이전 작과 너무 많은 게 달라졌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출연자들도 잭 스페로우와 바르보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새로운 인물들이었고, 감독 또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물인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다만, 이렇게 시리즈의 전작이 별로였는데 5편이 꽤 볼만하게 되었다는 점은 시리즈 영화에서 의외인 일이었다.

### 최지혜(약학과 20145138)

"캐리비안의 해적: 낚선 조류"는 주인공인 해적 잭 스페로우 선장에 걸맞게 영국 정부에 붙잡혀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도망치는 이야기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합니다. 도망치고 붙잡히고 또 도망치고 하면서, 이번에는 잭 스페로우 선장이 새로운 보물을 찾아 가는데 보물인즉, 머나먼 이국의 땅 어딘가에 항상 숨겨져 있다는 "젊음의 샘" 입니다. 이 "젊음의 샘" 찾아가기 이야기는 그다지 복잡하게 얽히고설키지 않고 비교적 선명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보물이 나타나는 곳의 분위기는 꽤 신비로워 보이게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보자면 요즘 유행치고는 방대하기 보다는 간명하게 그린 신나는 모험극이라 할 만합니다. 이 영화에서 재미있었던 부분은 틈틈이 들어가 있는 대항해시대 뱃사람 모험담의 갖가지 요소들입니다. 해적/역사적 주요 인물 양쪽 모두 실존 인물이 등장해서 분위기를 돋우기도 하고, 외다리 해적 선장, 럼주를 좋아하는 뱃사람, 스페인 해군과 영국 해군의 경쟁 관계, 당시 신구교의 대립, 뱃사람들의 전설 속에 나오는 신비의 생물 등등이 등장해 줍니다. 대항해시대의 특유의 소재인 적을 공격하기 위해 나라의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해적질을 하는 "사략선"도 나와 주고, 영원한 해적 이야기의 한 장면인 "영국군에게 쫓기며 중남미를 흘러 다니는 해적들"도 여전히 등장해 줍니다. 이 중에서 문제의 "신비의 생물"을 제외하면, 어느 것 하나 신기하고 진중해 보일 만큼 공들여 긴 시간 표현되고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즐기기에 재미날 만큼 갖가지 풍부하게 이런 이야기 거리들이 나와서 제대로 해적 모험담 분위기를 굳혀 주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진지한 대항해시대 모험담 영화라고 하기에는, 대포를 쏘아대며 배끼리 싸우는 장면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편이고, 뱃사람들의 고민과 역경을 드러내는 이야기 거리들도 부족한 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량이 떨어져 갈 때의 불안감과 혼란이나, 멀리서 보이는 육지를 발견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감정,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 살다 보니 너무 지겹고 "바다가 그리워" 다시 배를 타게 되는 심리, 이런 부류의 내용들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영화 이야기 속에 충분히 멋지게 어울려들 수도 있어 보이고 한 번 즈음은 보고 싶은 소재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이런 게 엮여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점들을 포기한 대신에 이 영화 고유의 이야기들이 더 뚜렷해 졌고, 전반적으로 좀 더 날렵하게, 지루하지 않게 지켜 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영화에는 잠깐 지나가는 배라도 등장하는 범선의 모습들이 어느 영화 못지않게 무척 아름답고 보기 좋게 나오고 각종 의상, 소도구도 공들여 꾸며져 있어서 단출한 소재들도 꽤 그럴듯해 보이는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영화의 전반적인 미술은 "환상적이고 요란한" 분위기 보다는 좀 더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분위기로 잡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로 환상적인 장소조차도, 시대상에 알맞게 17세기, 18세기 그림 속 신화 풍경의 구도처럼 세트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적인걸" 처럼 현대적인 미술로 과거의 이야기를 꾸며낸 영화들과 대조 되어 보였습니다. 여자 주인공 격인 페넬로페 크루즈는 이야기 진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왜 저러나?" 싶은 알 수 없는 행동만 가끔 할 뿐, 그저 "어여쁜 라틴 미인" 으로서 화면을 장식해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종의 악역을 맡은 이안 맥세인 역시 충분히 활약할만한 역할이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분량은 많지만 다채로운 상황에 놓여있다가 보다는 심심하고 전형적인 한 가지 태도만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안 맥세인은 초장의 위압감과 살짝 악마적인 분위기를 잘 견지해서 악역다운 위엄을 성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액션 블록버스터" 중에도 울고 웃고 진지하고 무섭고 별별 이야기를 기나길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많아져 갑니다만, 이 영화는 그와 달리 "젊음의 샘"을 찾아간다는 한 가지 줄거리에 알맞게 맞춘 것으로 경쾌하게 달려 나가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지구의 운명을 구하고, 우주의 철학을 꿰뚫는다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로 도약하지도 않습니다. 영화들을 보다 보면 긴긴 상영 시간 속에서 도저히 알 수 없는 마구 꼬인 복잡한 법칙을 가진 이상한 기구, 기술, 악당, 영웅, 악마, 천사 등이 등장해서 어지럽히기만 하다가 억지스럽게 "사실 이런 특수 규칙도 있었지롱"하면서 때워 막으며 끝내는 이야기들도 많은데, 이 영화는 그런 것 없이 단출하게 경쟁하며 "젊음의 샘"을 찾으러 가고, 막판에 결전을 벌이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멋쟁이 영웅이 아니라, 정신 나간 해적을 주인공으로 해서 독특한 관점을 유지한다는 중심 소재도 적당히 지킨 영화였다고 느꼈습니다.

## 송지연, 최지혜 학생의 최종보고서

### 1. 프로그램 개요

- 1) 프로그램 명 : 영어 클럽
- 2) 참여자 : 송지연(약학과 14) 최지혜(약학과 14)
- 3)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 총 8회

나. 활동 기간: 2017년 3월 27일 ~ 2017년 6월 8일 (총 32시간)

### 2. 활동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2017.4.14	4시간	노원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감상 및 토론
2017.5.9	8시간	신사	'가디언즈오브갤럭시2' 감상 및 영화에 대한 토론
2017.5.27	4시간	청담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감상 및 영화 대한 이야기를 나눔
2017.5.28	4시간	노원	영화 감상문 함께 작성
2017.5.31	4시간	노원	'캐리비안의 해적: 낯선 조류' 감상 및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와 비교하고 토론
2017.6.1	4시간	노원	'오만과 편견' 감상 영화에 나오는 '다시'라는 인물에 대한 토론
2017.6.3	4시간	노원	일일 보고서 작성
2017.6.5	4시간	노원	최종 보고서 작성



## 2. 프로그램 소감

### 송지연(약학과 20145120)

사실 약속이 생기지 않는 이상 영화를 잘 보지 않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영화를 자주 보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감상문을 써야 하니 좀 더 영화를 자세히 분석하면서 집중해서 보게 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영화에 숨겨져 있는 의미나 구도 같은 것을 발견하여 더 재미있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평소 영화는 보고 나면 좀 피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의 이야기에 몰입하면서 생각보다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되어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영화를 자주 보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게 될 것 같고, 이런 새로운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게 해준 영글 클럽 프로그램에 감사드립니다!

### 최지혜(약학과 20145138)

영글 클럽을 통하여 같은 여유시간을 보내도 더 유익하게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공부로 인하여 지칠 때, 모든 것을 잠깐 내려두고 영화에 집중하는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잘 되어서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같은 영화를 보고 느낀 점과 흥미로운 부분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이 영글 클럽을 접하기 전에 학생 신분으로서 영화관에 자주 영화를 시청하기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선 듯 가기가 어려운 적이 있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정말 좋아하는 영화를 마음껏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3. 활동사진



## IV. 현름 팀 활동보고서

### 미녀와 야수

#### 1. 감상 영화 소개 및 줄거리

영화감상 일시	2017년 4월 3일 월요일
영화감상 장소	교내 학관
영화 제목	미녀와 야수
감독	빌 콘돈
주연	엠마 왓슨, 댄 스티븐스, 룰크 에반스
영화 장르	판타지 로맨스
줄거리	<p>스크린에 재탄생한 세기의 걸작! 전 세계가 기다려온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p> <p>똑똑하고 아름다운 ‘벨(엠마 왓슨)’은 아버지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서 벗어나 운명적인 사랑과 모험을 꿈꾼다.</p> <p>어느 날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찾아 폐허가 된 성에 도착한 벨은 저주에 걸린 ‘야수’(댄 스티븐스)를 만나 아버지 대신 성에 갇히고, 야수 뿐 아니라 성 안의 모든 이들이 신비로운 장미의 마지막 꽃잎이 떨어지기 전에 저주를 풀지 못하면 영원히 인간으로 돌아올 수 없는 운명임을 알게 된다.</p> <p>성에서 도망치려던 벨은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해 준 야수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차츰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하는데...</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네이버 영화</p>

## 2. 영화를 보고 느낀 점

### 이아름(간호학과 20162150)

이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은 동화와 완전히 똑같았다. 그래서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있었다. 디즈니 만화가 실사화 된다고 해도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엠마 왓슨이 주연 벨 역으로 캐스팅되고 댄 스티븐슨이 야수 역으로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꼭 봐야 하는 영화가 되었다. 엠마 왓슨의 미모는 벨 역에 잘 어울릴 것 같았는데, 댄 스티븐슨이 아쉬웠다. 하필이면 많고 많은 디즈니 영화 중에 야수로 변하는 왕자 역을 맡아서 영화 내내 얼굴이 안 나오고 대부분이 야수로만 나오는 점이 아쉬웠다. 약간의 뮤지컬 형식을 더한 2017년 실사판 영화 미녀와 야수는 초반부터 출연배우들의 의상과 배경에 눈이 갔고, 군더더기 없이 빨리 진행되는 이야기 전개가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정말 벨 그 자체인 엠마 왓슨의 미모에 놀라면서 영화를 보는데, 노래도 잘하고 예쁜데다가 당찬 모습까지 너무 아름다웠다. 하지만, 댄 스티븐슨이 캐스팅되었다는 것을 몰랐으면 마지막까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을 야수의 정체가 아쉬웠다. 목소리도 인간보다는 야수에 가까워서 영화 내내 댄을 느낄 수가 없었다. 마지막에 마법이 풀리고 왕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도 무심한 카메라는 벨만 비춘다. 사실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는 의외로 매력적인 캐릭터이다. 외모가 괴물이어서 그렇지 온순하고 세심한 성격이어서 벨에게도 친절해서 비호감 캐릭터가 아닌데, 이 영화에서 야수는 제법 체격도 좋고 무섭게 생긴 외모가 아니라서 거부감이 적었다. 의외로 미녀와 야수에서 인상적이었던 캐릭터는 가스통 역의 루크 에반스였다. 전형적인 상남자로 왕자병이 아주 심한 캐릭터인데 루크 에반스가 이 역을 어찌나 능청스럽고 자연스럽게 연기하던지 보는 내내 웃음을 참느라 아주 혼이 났다. 미녀와 야수에는 상당한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했다. 야수와 마찬가지로 마법에 걸려 사물이라 목소리 연기가 대부분이었지만, 시계 역 이안 맥켈런, 촛대 역에 이완 맥그리거, 찻잔 역에 엠마 톰슨 등 유명한 영국 출신 배우들이 총출동해서 인간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매우 반가웠다. 이제 더 이상 동화를 동화로서 보는 나이가 지났지만 미녀와 야수를 보면서 나도 저 성에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영화는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그대로 옮겨두었고 화려한 의상과 화려한 배경 등 볼거리가 많아서 확실히 시선을 사로잡았다. 영화 후반부에 마법이 풀리면서 마을 사람들과 재회를 하는 장면이 이상하다 했는데, 영화에서는 성 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시간이 멈춰서 계속 같은 날만 반복해서 사는 설정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으나 이해를 하고 보니 영화 초반에 벨이 마을에서 노래를 부르던 것과 딱 들어맞았다. 영화 미녀와 야수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스토리는 없었지만 아름답게 영화로 잘 표현한 영화인 것 같았다.

## 홍승현(간호학과 20162175)

원작을 시작으로 다양한 장르로 재탄생을 거듭한 작품 <미녀와 야수>는 일종의 하나의 아이콘이다. 디즈니가 이번 2017년에 택한 <미녀와 야수>의 정체성은 뮤지컬영화이다. 장르에 걸맞은 화려한 비주얼과 캐릭터들의 역동성은, ‘진정한 성공’을 보여준다. 이미 <미녀와 야수>를 잘 꿰뚫어 안다. 캐릭터의 특색, 내러티브, 결말까지 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미녀와 야수>는 설렘 요소를 한가득 안고 있다. 익숙한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 ‘제대로 된 변주’ 덕분에, 지루함의 우려를 고스란히 덜어내는데 성공한 것 같다. 주인공 벨은, 작은 마을에서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다. 그녀는, 마을 최고의 미녀이지만 주미들이 좀처럼 가까이하지 않는 책에 취해있다는 이유 때문에 ‘괴짜’로 불린다. 벨은 넓은 세상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꿈 많은 소녀다. 어느 날, 벨의 아버지는 야수의 정원에서 벨에게 갖다 줄 장미를 꺾다가 도둑으로 몰린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벨은 야수의 성에 갇힐 것을 자처한다. 영화는, 야수의 성에 갇힌 벨의 모험을 통해 용기와 진정한 사랑 등을 설명한다. 감동적인 이야기들 속에는 ‘마법’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저주에 걸린 야수와 성 안의 사물들이 옛 모습들로 거듭나는 것이 마법의 기적이라면, 벨은 요정, 그녀가 겪는 온갖 모험들은 마법을 위한 성장통이었다. 아름다운 미모, 지적인 면모, 타인을 위한 희생에 이르기까지, 벨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는 인물이다. 물론, 결핍은 존재한다. 넉넉하지 못한 집안 환경, 어머니의 부재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영웅이라면, 열악한 환경을 딛고 일어서야 마땅한 법이다. 올해 영화로 나온 <미녀와 야수>는 뮤지컬영화의 장르성을 가득 안고 있다. 웅장한 스케일, 춤과 노래로 보다 커진 캐릭터들의 동선들은 보는 재미를 배가시킨다. 몇몇 장면들은,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톡톡 튀는다. 무엇보다 OST는 익숙함에 새로움이 더해져, 듣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보고 듣는 즐거움만으로도 <미녀와 야수>는 설렘 그 자체였다. 그보다 설렘을 배가시킨 이번 작품의 포인트가 있다. 바로 야수의 귀염성이었던 것 같다. 야수의 환한 미소에 심장이 녹아버릴 것 같았다. 걸모습이 다가 아니라면서 너무나 예쁘고 잘생긴 배우들을 선보인 점은 오류일 수 있지만, 덕분에 보는 즐거움이 컸다. 많은 이들의 기대만큼이나 영화는 잘 나왔던 것 같다. 황금빛 가득한 실사판 <미녀와 야수>였다.

영글 클럽(2017-1)

이 영화에서 등장한 다양한 OST들은 영화 관람이 끝난 후 개인적으로 찾아서 들어볼 만큼 귀에 달라붙고 감미로운 노래들이었다. 첫 번째로 ‘Beauty and the Beast’이다. 이 노래는 미녀와 야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의 주제곡으로, 잔잔한 노래이다. 두 번째는 ‘Belle’이다. 평화롭고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벨과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벨의 이야기로, 노래의 초반부에 나온다. 세 번째는 ‘Gaston’이다 청혼에 거절당해 우울한 가스통을 위해 위로하는 루프의 노래이다. 이 가사에서 가스통의 거만한 성격이 그대로 나와 있다. ‘Be our guest’는 접시들과 촛대들이 춤추며 벨을 환영하는 노래로, 화려한 스크린의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Something there’은 벨은 야수의 자상하고 따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벨과 야수가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여는 노래이다. ‘뭔가 달콤하기도 하고 친절할 것 같기도 해. 하지만 그는 못 됐었고 거칠었었고 교양도 없었어. 그런데 지금의 그는 상냥하고 확신할 수가 없어. 예전에는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었을까’라는 가사부터 감미로운 노래이다. ‘Ever more’은 성을 떠난 벨을 기다리며 부른 야수의 노래이다. ‘이제 나는 그녀가 절대 날 떠나지 않을 것을 아네. 그녀가 달아나버렸다 해도, 그녀는 계속해서 내게 고통을 주고, 날 진정시키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날 달라지게 할 테지, 무슨 일이 있어도’라는 가사가 인상적이었다. ‘How does a moment last forever’은 영화의 엔딩곡으로 벨과 야수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부르는 노래이다. 이 모든 노래들이 영화를 보는 내내 영화를 좀 더 집중하게 해주고, 감정이입에 보다 도움이 된 것 같다.

## 어바웃 타임

### 1. 감상 영화 소개 및 줄거리

영화감상 일시	2017년 4월 17일 월요일
영화감상 장소	교내 학관
영화 제목	어바웃타임
감독	리차드 커티스
주연	도널 글리슨, 레이첼 맥아담스
영화 장르	판타지 로맨스
줄거리	<p>모태솔로 팀(도널 글리슨)은 성인이 된 날, 아버지(빌 나이)로부터 놀랄만한 가문의 비밀을 듣게 된다. 바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이 비록 히틀러를 죽이거나 여신과 뜨거운 사랑을 할 수는 없지만, 여자친구는 만들어 줄 수 있으리..</p> <p>꿈을 위해 런던으로 간 팀은 우연히 만난 사랑스러운 여인 메리에게 첫눈에 반하게 된다.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팀. 어설픈 대시, 어색한 웃음은 리와인드! 뜨거웠던 밤은 더욱 뜨겁게 리플레이! 꿈에 그리던 그녀와 매일매일 최고의 순간을 보낸다.</p> <p>하지만 그와 그녀의 사랑이 완벽해질수록 팀을 둘러싼 주변 상황들은 미묘하게 엇갈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p> <p>어떠한 순간을 다시 살게 된다면, 과연 완벽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p> <p>[출처] 네이버 영화</p>

## 2. 영화를 보고 느낀 점

### 이아름(간호학과 20162150)

여자 앞에서만 서면 절로 속맥이 되어버리는 순수 청년 팀은 성인이 되던 해에 놀라운 가문의 비밀을 듣게 된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타임 리프’ 능력에 관한 것이었다. 비록, 히틀러는 암살하여 인류의 비극을 막는다거나 전설적인 스타와 사랑에 빠질 수는 없지만, 인생의 변수 정도는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그렇게,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과 꿈을 안고 런던으로 간 팀은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귀여운 아가씨 메리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다. 오직,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시간 여행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한 팀은 일생일대의 짜릿한 경험을 만끽하게 된다. 하지만 팀과 메리의 사랑이 완벽해질수록 주변 상황들은 점점 엇갈리고,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줄거리이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주관적으로 느낀 생각들이 있다. 첫 째는, 스스로 깨우치고, 변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성장은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완벽한 인생을 꾸려가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처음 살아보는 오늘이기에 서툰고, 괴롭고, 상처받는 것이 당연하다 정처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한 번뿐이고, 이에 따라 감당해야 할 결과는 달라진다. 매번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답안을 고안해낸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실수는 불가피한 일이 되어버린다. 더군다나,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변수를 고려한다면, 답안지의 빈칸은 더욱 협소해진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의 법칙이 역설적인 것도 이 때문인 것 같다. 주인공 팀은 과거로의 여행을 통해 부끄러운 일상의 단면을 고쳐나가고 지인들의 불행을 막아준다. 하지만, 그가 사건에 개입할 때마다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난다. 아버지의 친구이자 집주인 해리의 연극을 성공시키기 위해 과거로 돌아간 순간, 운명의 여인 메리의 연락처는 삭제된다. 여동생 킷캣이 나쁜 남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다 못해 과거로 떠나버리자, 그의 사랑스러운 딸 포지는 낯선 아들이 되어버렸다. 무엇보다, 타임 리프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첫사랑 샬롯의 마음을 얻는 것은 실패한다. 결국, 시간 여행과는 별개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결점들은 현재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했고, 적극적으로 행동했을 때, 엉켜있던 매듭은 하나씩 풀리게 된다. 팀이 매 순간 노력하여 유능한 변호사로 거듭나자, 그에게 퇴짜 놓았던 샬롯이 도리어 유혹의 손길을 뻗친다.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던 여동생 킷캣은 비정상적인 연애로 인해, 정신이 피폐해진 사실을 자각하게 되자, 비로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된다.



이처럼, 참된 성장의 기쁨은 실수의 조각들을 완벽하게 채워 넣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 깨우치고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시작된다. 만일, 팀이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에 의존하여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다면 그는 역으로 시간에 지배당하는 노예로 전락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인생은 모두가 함께 하는 시간 여행이다. 하루하루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이 멋진 여행을 즐기라는 것이다. 얼핏 보면, 주인공 팀이 쟁취해낸 행복의 근원은 타임 리프 능력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의 간절함이 사랑의 결실을 이루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인의 난처한 상황을 구제해주느라 메리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는다. 하루도 빠짐없이 메리가 좋아하는 모델의 전시회에 출근 도장을 찍고, 과거를 되돌리는 잠깐 사이에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그녀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보를 알아내어 대시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구애작전을 펼친다. 만일, 팀이 암흑으로 뒤덮인 카페에서 메리와 처음 만난 날, 그녀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아무리 시간여행을 한다 해도 불가능했을 시나리오이다. 비록, 한차례 엇나가긴 했지만, 사랑이란 불가항력적인 감정은 이미 두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있었던 셈이다. 수줍게 미소 지으며 팀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었을 때에도, 남자친구가 옆에 있음에도 팀의 말 한마디에 잔잔한 끌림을 느꼈던 것도, 무의식적인 메리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주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둘은 결국 사랑에 빠졌을 것이고, 결혼에 골인했을 거란 복선들은 극이 진행됨에 따라 더욱 분명해졌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여행을 가장 멋지게 해나가는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내일이 어떤 모습일지 알 순 없지만, 적어도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산다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 홍승현(간호학과 20162175)

영화는 '팀'이 자신의 가족들을 소개하며 시작된다. 새해맞이 파티 때 해넘이가 넘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폴리'라는 여자와 키스를 거부한 팀은 스스로 한심해하며 21세가 되는 해를 맞는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버지에게 자신의 집안의 남자들은 21세가 되면 시간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만 자신이 기억하는 시절의 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미래로 갈 수는 없다. 또한 어두운 공간에서 혼자 집중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하룻밤 전으로 이동한 팀은 어제 자신이 키스를 거부한 폴리에게 미안함을 느껴 키스를 해주고 폴리는 매우 고마워한다. 이를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자신의 첫사랑이던 샬럿과 잘 해보려던 팀은 여름 휴가 시절로 되돌아간다. 약간 어수룩한 친구 제이와 자신의 여동생 킷캣과 보내던 여름에서 팀은 시간이동을 하며 샬럿을 꼬셔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이후 변호사가 되어 런던으로 취직하러 간다. 상당히 까칠한 극작가이자 아버지의 친구인 해리와 그의 딸의 집에서 얻어 살게 된 팀은 초임 변호사라서 로펌에서 털리기 일쑤지만, 로펌 동료 로리와 친해지며 평범한 날들을 보낸다. 어느 날 절친 제이와 함께 블라인드 레스토랑에 놀다가 샬럿 이후로 처음으로 크게 마음이 끌리는 메리와 만나게 된다. 메리의 번호를 받고 즐겁던 찰나에 집으로 가니 해리는 자신이 힘들게 쓴 극의 초연을 주연 배우가 대사 암기를 못하는 바람에 망쳐버리고 좌절한 상태였다. 팀은 시간이동으로 해리의 연극이 망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과거로 가 주연 배우를 돕고 해리는 성공으로 다시 기고만장해진다. 다만 대신 레스토랑에 가지 않은 것이 되어 메리의 전화번호는 사라지고 만다. 여기서 팀의 성격이 드러나는데 팀은 시간여행으로 자신의 친구인 해리의 일을 되돌리고 자신의 사랑을 찾는 대신에 메리가 좋아하는 배우의 사진 전시전에 간다. 그런데 메리는 그 사이에 남자친구가 생겨버렸고 남친과 만난 파티를 알아낸 팀은 그 시간대로 가서 메리를 꼬셔내고 잘 되서 동거하게 된다. 그러던 중에 팀의 첫사랑이었던 샬럿과 재회하고, 샬럿은 팀의 변한 모습에 반했는지 그를 유혹한다. 샬럿의 거처에 들어가기 직전에 팀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메리를 찾아가 청혼하고 두 사람은 결혼한다. 결혼식을 마치고 자녀를 낳고 살게 된 팀과 메리 부부. 새로운 생활과 양육, 경제적 문제 같은 것들이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조금씩 스스로의 삶에 만족해가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그 사이 킷캣은 연인인 지미와의 싸움 이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는 등, 점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를 안타까워 한 팀은 킷캣이 불행의 시작인 지미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지미를 만난 밤으로 가서 시간을 수정하고 돌아오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다. 자신의 자녀를 낳은 후엔 자녀를 낳기 전으로 이동하면 자녀가 바뀌어버린다는 것. 팀은 이 일로 처음으로 수정을 포기하고 다른 방안을 찾게 된다.

영글 클럽(2017-1)

---

여러 고생 끝에 킷켓은 지미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팀의 약간 어수룩한 친구인 제이와 이어지게 된다. 그렇게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무렵, 아버지가 폐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젊은 시절부터 피워온 담배가 원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팀과 킷켓의 존재를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담배를 피웠던 과거를 수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맞는다. 그리고 죽기 직전 아버지는 팀에게 자신이 매일 하루를 두 번 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항상 그 전날 느꼈던 것을 새롭게 느끼며 행복을 영위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팀은 이를 실천하며 새롭고도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또한 과거로 이동해 한정된 시간대에서 아버지와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하지만 셋째 아이를 갖게 되면서 결국 아버지를 보내기로 마음먹게 된다. 셋째 아이의 출산 직전,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 이별을 고백한 후, 아버지와 어린 시절 놀던 해변으로 잠시 돌아가 작별을 시간을 가지게 된다. 팀은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낸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으며, 자신과 주변 인물들의 인생 역시 나날이 새롭게 변화해 간다. 하지만 팀은 더 이상 시간 여행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아버지가 추천해준 행복의 비결인 같은 날을 두 번씩 사는 것 역시 포기한다. 대신 하루를 정말 값지게 사용하며, 항상 최선을 다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며 스스로 그의 아버지의 행복의 비법 이상의 행복을 만들어내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으로 영화는 끝을 맺는다.

---

## 집으로 가는 길

### 1. 감상 영화 소개 및 줄거리

영화감상 일시	2017년 4월 17일 월요일
영화감상 장소	교내 학관
영화 제목	어바웃타임
감독	리처드 커티스
주연	도널 글리슨, 레이첼 맥아담스
영화 장르	판타지 로맨스
줄거리	<p>2004년 10월 30일 프랑스 오를리 국제공항, 30대 한국인 주부 마약 운반범으로 검거! 대한민국이 외면한 안타까운 사건이 공개된다!</p> <p>“저는...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딸이 세상 전부인 평범한 아내. 여권에 처음 도장이 찍히던 날, 그녀는 프랑스에서 마약범으로 몰려 교도소에 수감된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22시간, 대서양 건너 12,400km 지구 반대편 프랑스 외딴 섬 마르티니크 교도소.. 말도 한마디 통하지 않는 낯선 곳...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p> <p>“제발.. 제 아내를 돌려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세상 전부인 평범한 남편. 그는 친구의 배신으로 집과 어렵사리 마련한 가게 그리고 아내마저 잃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이아나에서 프랑스로 원석을 운반한 아내. 그러나 그것은 마약이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22시간, 대서양 건너 12,400km 지구 반대편 프랑스 외딴 섬 마르티니크 교도소..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머나먼 곳... 그는 아내를 되찾을 수 있을까?</p> <p>[출처] 네이버 영화</p>

## 2. 영화를 보고 느낀 점

### 홍승현(간호학과 20162175)

영화는 영화 제목처럼 ‘집으로 가는 길’을 테마로 만들어졌다. 집으로 가는 길에 송정연 (전도연 역)은 납치를 당한다. 남편인 김종배 (고수 역)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아내를 추적하지만 끝내 쉽게 찾지 못한다. 하지만 그래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서서 결국에는 찾아낸다.

이렇게 내용은 간단하지만 영화 중간 중간에 있던 충격적인 장면은 쉽게 잊지 못하겠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신선한 소재의 영화는 새롭게 와 닿았다. 영화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것 같다. 이런 새로운 장르의 영화도 도전해보고 나중에는 이렇게 도전해본 장르에 대한 생각을 또 감상문으로 남겨보고 싶다. 집으로 가는 길에는 교훈 아닌 교훈이 있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어려운 순간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삶의 의지를 다지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 때 나라면 아마 죽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면서 좌절했을 것 같다. 하지만 여러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이를 잘 넘기고 살아가는 주인공을 보니 여러 가지로 감동스러웠다. 이렇게 삶의 의지는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 주는 영화였다. 이외에도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의문점도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한의 상황까지 사람을 방치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극한의 상황이 와도 살아남는 인간의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로 느끼는 바가 많았다. 앞으로 이렇게 인간이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난으로 인해 오해에 오해가 더해져 극한의 상황에까지 몰린 주인공이 정말 안타까웠고 이렇게 방치해둔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으면 국가가 먼저 책임을 가지고 국민들을 구해내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도 전하고 싶었던 것 같다. 영화 같이 이런 상황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 As good as it gets

### 1. 감상 영화 소개 및 줄거리

영화감상 일시	2017년 5월 29일 월요일
영화감상 장소	교내 학관
영화 제목	As good as it gets
감독	James L Brooks
주연	잭 니콜슨, 헬렌 헌트
영화 장르	드라마, 코미디
줄거리	<p>멜빈 유달(Melvin Udall: 잭 니콜슨 분)은 강박증 증세가 있는 로맨스 소설 작가이다. 뒤를 리고 냉소적인 성격인 멜빈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경멸하며, 신랄하고 비열한 독설로 그들을 비꼰다. 그의 강박증 역시 유별나다. 길을 걸을 땀 보도블럭의 틈을 밟지 않고,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뒤뚱뒤뚱 거린다. 식당에 가면 언제나 똑같은 테이블에 앉고, 가지고 온 플라스틱 나이프와 포크로 식사를 한다. 이러한 신경질적인 성격 탓에 모두들 그를 꺼려한다.</p> <p>그러나 식당의 웨이트레스로 일하는 캐롤 코넬리(Carol Connelly: 헬렌 헌트 분)만은 예외이다. 언제나 인내심있는 태도로 멜빈을 대하는 그녀는, 그의 신경질적인 행동을 참고 식사 시중을 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어려움은 있다. 그녀는 천식으로 괴로워 하는 어린아들이 있지만, 변변한 치료도 못할 정도의 빠듯한 살림을 아이 아빠없이 혼자 꾸려나가야 하는 것이다. 내 삶의 방해자? 아니면 구원자? 멜빈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는 이웃에 사는 게이 화가인 사이먼(Simon Bishop: 그렉 키니어 분)이다. 그는 멜빈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싫어하며 또한 그의 작고 귀여운 개 버델도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p> <p>사이먼의 작품 중개인이자 연인인 프랭크(Frank Sachs: 쿠바 구딩 주니어 분)는 멜빈이 사이먼에게 못되게 굴 때마다 물리적인 위협으로 멜빈을 으르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한다. 사이먼이 강도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멜빈이 사이먼의 애견, 버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처음에 멜빈은 버델을 싫어하지만, 이 작은 강아지로 인해 멜빈의 얼음같은 심장은 서서히 녹기 시작한다. 그는 버델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사이먼과 캐롤의 개인적인 곤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다. 어느덧 자신 안의 인간미를 느끼게 된 멜빈은 버델의 주인인 사이먼과의 우정을 가꾸고, 그리고 따뜻하게 마음을 열어준 캐롤과의 로맨스를 시도하는데..</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네이버 영화</p>

## 2. 영화를 보고 느낀 점

### 이아름(간호학과 20162150)

중학교 2학년 영어시간에나 배우던 as A as B 어법이다. 당시 해석은 ‘B만큼 A하다.’라고 배웠던 것으로 기억된다. AS GOOD AS IT GETS.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라는 뜻이다. 이 영화는 잔잔한 웃음과 마음 푸근한 감동을 선사하는 영화이다. 수많은 명대사들을 남긴 영화이기도 하다.

첫 장면은 뉴욕 한 아파트의 복도에서 시작된다. 무슨 옛날 뮤지컬 영화틱한 분위기에서 어떤 할머니가 등장하는데, 그녀는 즐거운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가 뭔가 못 볼 것을 본 표정을 하고는 바로 문을 닫아버린다. 그리고 등장하는 자는 딱 봐도 몹쓸 인간의 인상을 지닌 잭 니콜슨이다. 그는 강아지 한 마리와 씨름 중이다. 결국 그 강아지를 쓰레기통으로 골인시킨다. 강아지가 떨어지며 내는 리얼한 음향효과가 인상적이다. 잭 니콜슨의 극중 이름은 멜빈이다. 멜빈은 강박증 환자이다. 그는 문을 잠글 때 하나 둘 셋 넷을 세며 잠그는 동작을 반복한 후, 다섯을 셀 때 비로소 잠그게 된다. 손이 데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연기가 피어나는 고온의 물을 틀어서 손을 씻는데 비누는 한 번 만진 후 바로 쓰레기통으로 던져 버린다. 그의 강박증의 꽃은 선 안 밟기이다. 무슨 말이나면, 그는 길바닥의 보도 블럭 라인을 절대 밟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한이 있어도 절대 밟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 타인과 접촉하는 것도 상당히 거부해한다. 그는 혼자 살고 있으며, 그의 직업은 작가이다. 혼자 살고 외롭고, 연인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연애 소설을 쓴다. 그는 소음에도 민감하여 파티를 일삼는 옆집 게이 청년과도 그 문제로 종종 마찰을 빚기도 한다. 물론 첫 장면에 등장한 개가 문제가 되기도 했을 터이다. 그는 항상 가는 카페에서 식사를 해결한다. 뉴욕의 전형적인 카페테리아 분위기이다. 그는 자신이 항상 앉는 그 자리에 앉으며 항상 주문을 같은 직원에게만 받는다. 그리고 나이프와 포크 따위는 직접 플라스틱으로 준비하여 들고 다닌다. 테이블에 앉으면 자신이 들고 온 환경호르몬이 심히 걱정되는 것들로 손수 테이블 세팅을 한다. 다른 사람이 만약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주변을 서성이거나 불쾌하게 만들어 기어코 그 자리에 앉고야 만다. 그의 고정 웨이트리스 헬렌 헌트, 극중 이름은 캐롤이다. 이 여자는 그의 이상한 고객도 딱히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뭔가 그를 이해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체념한듯한 태도로 그의 주문을 받는다. 캐롤은 아들과 어머니와 셋이서 산다. 그녀의 아들은 심한 천식으로 앓고 구토도 하고 아주 힘든 상태이다. 이런 아들을 돌보면서 생계를 위해 일하는 그녀를 어머니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어느 날, 그녀는 남자 한 명을 집으로 데리고 온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아들과 어머니가 다 집에 있는데도 커튼 하나 슬쩍 쳐 놓고서는 남자와 애정 행각을 시도한다는 것이었다. 멜빈의 옆집 게이 청년은 미술가이다. 그래서 파티도 자주 하고 화려한 인생을 산다. 그러던 그에게 사고가 생긴다. 그의 누드모델을 했던 사람이 친구들을 끌어들여 도둑질을 하다가 걸리자 그를 마구 때린 것이다. 그는 얼굴을 심하게 꺾매게 되었고, 한 쪽 팔도 다쳤다. 그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자 그의 주변인들은 어디로 싹 사라져 버린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예전보다 좀 시원찮아 보이는 게이 남친과 강아지 한 마리 뿐이다. 그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일 때 강아지를 맡길 곳에 마땅치 않자 게이 친구는 멜빈에게 강아지를 맡긴다. 멜빈은 당황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강아지 버델을 맡게 된다. 강아지 버델은 주인이 그리워서 그런지 밥도 먹지 않는다. 그런데 멜빈이 피아노를 치며 아주 간단한 한 소절을 불러주자 강아지가 그 음악에 맞춰서 일어나더니 발을 하나씩 내딛고는 음식 근처로 향하여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 멜빈은 강아지와 함께 카페에도 가고, 길도 거닐면서 친해지기 시작한다. 강아지와 길을 거니는 장면은 다소 우스웠다. 멜빈이 그러하듯이 이 강아지도 길의 선을 밟지 않고 걸어가는 이유였다.

이것이 이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이다. 이 이후에도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존재하지만, 줄거리보다는 이 영화에 나온 명대사들이 더 인상 깊었다.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멜빈이 캐롤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했던 대사이다. 영화를 안 봤더라도 이 대사는 한 번쯤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영화의 초반부엔 차갑고 비인간적이기까지 하던 멜빈이 캐롤에게 이런 말을 하며 고백하는 장면은 정말 인상 깊었다. 마치 내가 직접 이런 고백을 들은 것 처럼 감동적이고 따뜻해지기까지 했던 것 같다.



### 홍승현(간호학과 20162175)

멜빈 유달(Melvin Udall: 잭 니콜슨 분)은 강박증 증세가 있는 로맨스 소설 작가이다. 뒤틀리고 냉소적인 성격인 멜빈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경멸하며, 신랄하고 비열한 독설로 그들을 비꼰다. 그의 강박증 역시 유별나다. 길을 걸을 땀 보도 불력의 틈을 밟지 않고,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뒤뚱뒤뚱거린다. 식당에 가면 언제나 똑같은 테이블에 앉고, 가지고 온 플라스틱 나이프와 포크로 식사를 한다. 이러한 신경질적인 성격 탓에 모두들 그를 꺼려한다.

그러나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캐롤 코넬리(Carol Connelly: 헬렌 헌트 분)만은 예외이다. 언제나 인내심 있는 태도로 멜빈을 대하는 그녀는, 그의 신경질적인 행동을 참고 식사 시중을 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어려움은 있다. 그녀는 천식으로 괴로워 하는 어린 아들이 있지만, 변변한 치료도 못할 정도의 빠듯한 살림을 아이 아빠 없이 혼자 꾸려 나가야 하는 것이다. 내 삶의 방해자? 아니면 구원자? 멜빈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는 이웃에 사는 게이 화가인 사이먼(Simon Bishop: 그렉 키니어 분)이다. 그는 멜빈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싫어하며 또한 그의 작고 귀여운 개 버델도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이먼의 작품 중개인이자 연인인 프랭크(Frank Sachs: 쿠바 구딩 주니어 분)는 멜빈이 사이먼에게 못되게 굴 때마다 물리적인 위협으로 멜빈을 으르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한다. 사이먼이 강도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멜빈이 사이먼의 애견, 버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처음에 멜빈은 버델을 싫어하지만, 이 작은 강아지로 인해 멜빈의 얼음 같은 심장은 서서히 녹기 시작한다. 그는 버델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사이먼과 캐롤의 개인적인 곤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다. 어느덧 자신 안의 인간미를 느끼게 된 멜빈은 버델의 주인인 사이먼과의 우정을 가꾸고, 그리고 따뜻하게 마음을 열어준 캐롤과의 로맨스를 시도하는데 가 영화의 줄거리이다. 이 영화를 보고 이 영화의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이 영화는 주인공이 강박증을 앓고 있을 때 캐롤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그를 도와주는 내용이다. 단순하게 로맨스 장르의 영화로 보기보다는 이를 한 사람의 치유과정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영화의 교훈이 사람으로서 심리적인 병이 치료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주인공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순히 여자는 이 남자를 치유하고 싶었던 것보다는 먼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갔다. 그랬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았던 한 남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여자의 손을 잡아준 것이다.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는 강아지와와의 유대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강아지는 옆집에 사는 게이의 강아지 버델인데 이 강아지도 처음엔 주인공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런데 점점 서로 유대관계를 찾아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영글 클럽(2017-1)

---

이처럼 나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면 상대방도 나를 진심으로 대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 영화의 로맨스 장면들도 흥미로웠다. 특히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캐롤이 손님으로 온 멜빈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막말을 할 때 캐롤이 그런 말을 입에 올리면 가만 안 두겠다고 말했을 때 매사에 비꼬는 태도를 가진 멜빈도 캐롤의 말에서 진심을 느껴서 바로 수긍했다. 이때부터 멜빈이 캐롤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

다음에 또 이 영화를 보게 된다면 내가 놓쳤던 포인트를 찾으면서 볼 것이다. 그리고 이 영화를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

## 현름 팀 최종보고서

### 1.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 명 : 영어 클럽

2) 참여자 : 이아름(간호학과 16) 홍승현(간호학과 16)

3)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 총 4회

나. 활동 기간: 2017년 4월 3일 ~ 2017년 5월 29일 (총 13시간)

### 2. 활동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2017.4.3	19:00-22:00	학관	영화 '미녀와 야수'를 감상하고, 동화로 나온 미녀와 야수와의 내용적, 작품적인 특징들을 비교 분석하며, 이 영화가 주는 교훈에 대해 생각해보고 영화 감상문을 작성한다.
2017.4.17	19:00-22:00	학관	영화 '어바웃 타임'을 감상하고, 깨닫게 된 인간의 내면적인 모습에 대해 이야기 한다. 자신의 경험과 관련하여 즐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영화감상문을 작성한다.
2017.5.15	19:00-22:30	학관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을 감상하고, 이 영화가 선사하는 국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점을 생각해 본다. 영화감상문을 작성한다.
2017.5.29	19:00-22:00	학관	영호 'as good as it gets'을 감상하고, 이 영화의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화 감상문을 작성한다.

## 2. 프로그램 소감

조원과 함께 총 4가지의 영화를 감상하였다. 이 중에서는 우리가 이미 보았던 영화도 있었고, 보지 못한 영화들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았던 영화는 ‘어바웃타임’과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조원 모두 이 두 영화를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스터디를 하면서 두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처음에 영화관에서 보았을 때 놓친, 이 영화가 선사하는 의미를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처음 이 두 영화를 보았을 때는, 줄거리에만 집중하였다면, 이번 활동을 통해, 감독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인간의 내면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둘 다 보지 못했던 미녀와 야수, 그리고 as good as it get은,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던 영화들이다. 특히 as good as it gets라는 영화를 우리가 태어나던 때에 나온 영화이다. 둘 다 처음 접해 보는 거라서 다같이 학관에서 영화를 보았을 때는 내용적인 줄거리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하지만, 미녀와 야수는 기존의 동화 작품과 연관 지어서, as good as it gets는 이 영화의 제목이 뜻하는 바에 대해서 혼자서 생각하지 않고 둘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

이미 본 영화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보지 못했던 영화에 대해서는 서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